

도심 청년 특화주택 5년내 7.7만호 공급

보증금 등 이주비 90만원 지원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내년 특고·플랫폼 근로자 보험 적용

정부가 고시원·반지하·쪽방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전·월세 저금리 대출 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6면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를 열어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빌트인 가전이 포함된 청년특화 주택 7만6900호를 공급, 월 185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 등 이주 비용도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층을 위해 내년까지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 명의 구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2100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발표했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실질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9년 기준 1367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5년엔 2100만 명으로 733만 명 늘어난다. 예술인(7만5000명)은 이달 10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특고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106만~133만 명)을 내년 7월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22년 1월부터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179만 명)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박병림 기자 riby@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LG전자 '전기차 게임 체인저' 시동

세계 3위 부품사와 1兆 법인 설립
내년 7월 출범... '전장부품' 승부수
VS사업본부 그린사업 물적분할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업계 세계 3위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법인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가칭)을 설립한다. ▶관련기사 10·16면

LG전자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전장부품(VS)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대상으로 물적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분할회사인 LG전자가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갖게 되는데, 마그나가 이 중 49%를 인수한다. 인수금액은 4억5300만 달러(약 5016억 원)다.

내년 3월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합작법인은 7월에 공식 출범할 예

정이다. 본사 소재지는 대한민국 인천이다. 그린사업 일부와 관련된 임직원 1000여 명이 합작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분할되는 그린사업 일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는 물론 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모뎀화된 제품) 등이다.

LG전자는 "자동차의 전동화 트렌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량생산 체제를 조기에 갖추고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마그나와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기술 회사인 마그나는 1957년 설립됐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3위다. 파워트레인 외에 세시, 내·외장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본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르포 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 '판교 벨리·고속버스터미널' 식당街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상권이 재택근무의 직격탄을 맞았다. 23일 판교의 한 식당 상가 복도가 점심시간임에도 썰렁하다. 아래 작은 사진은 상가 입구에 붙어 있는 '임대 문의' 안내문. 안경무 기자 noglasses@

'유령도시' 된 한국의 실리콘밸리

"다음달 3일까지 잡혔던 예약들이 줄췄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된 23일 점심시간대. '집합금지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A 씨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는 경기도 판교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매출은 지난해 대비 정확히 반토막 났다. "그나마 주변 식당이랑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예요." 힘든 상황이지만 씩씩하게 말하는 30대 사장의 말이 웬지 더 아픈게 느껴졌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는 IT기업과 연구소가 집중돼 20~40대 젊은 직원 비중이 높다. 판교 소재 기업들은 적게는 20~30%, 많게는 90%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젊음은 역설적으로 '판교의 낮'을 황량하게 바꿔놓았다. 재택 비중이 높은 탓에 식당은 다른 지역 오피스상권보다 한산하다. 이날 육전 등을 파는 주점에서 일하는 B 씨는 "지난달엔 하루에 140만 원이 팔렸는데, 이달엔 80만 원 올리기도 힘들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이니 술 파는 저녁 장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판교 상권도 동반 침체의 나락으로 빠



재택근무 증가로 발길 끊겨
예약 줄췄소...상권 동반 침체
패스트푸드점 나홀로 복적
텀블러 터미널엔 배달원만 분주

져들면서 상가 곳곳에서 '임대 문의'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C 씨는 "근근이 유지하던 매출이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임차료는 그대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분의 점포에 발걸음이 끊겼지만 패스트푸드점만 유독 복적이다. 키오스크 3대를 둔 버거킹 매장에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길게 줄서 있었다. 그곳에서

식사 중인 한 남성의 시선은 4대의 스마트폰이 설치된 거치대를 떠나지 않았다. 한 손은 다음 배달콜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입에 빵을 연신 육여넣고 있었다.

같은 시간대 서울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10년째 고깃집을 운영해온 D 씨는 "열불 터져서 식당 불다 끄고 한강에 다녀온다"면서 "직원 5명을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꾸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 13만 원이 팔렸다. 예전엔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이라면서 "강남 금싸라기 땅에서 임차료만 나가고 인건비도 못 건지니 늘 적자"라고 토로했다.

식당가인 파미에스테이션 랜드마크인 1층 시계탑 바로 맞은편 테이크아웃 파스타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줄서는 파스타집으로 유명했지만 한 달째 영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인근 한식 뷔페 집 종업원 D 씨는 "코로나 이전엔 200석 규모였는데 지금은 절반 아래로 줄었다"고 했다. 인적이 끊긴 고속터미널 식당가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은 배달원들이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김해지 기자 heyji@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맞다"...징역 4년

"증거 조작·허위진술 중용 가능성" 법정 구속...벌금 5억 선고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낮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업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

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대학부터 이어진 입시 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돈 1억57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동양대를 찾아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상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김종용 기자 deep@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 10.4%... 금융위기 후 최대

현실화율 2.9%p 높아진 68.4%
“2028년까지 90%로 맞추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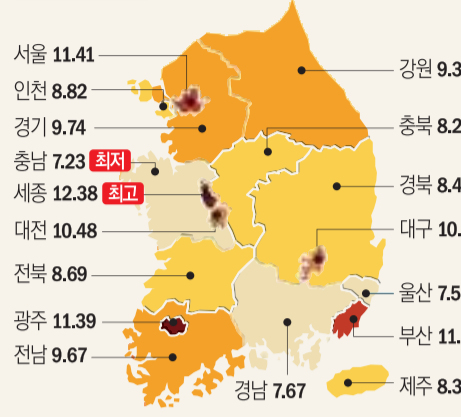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 m²당 2억
부동산 가격·임대료 상승 불보듯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 상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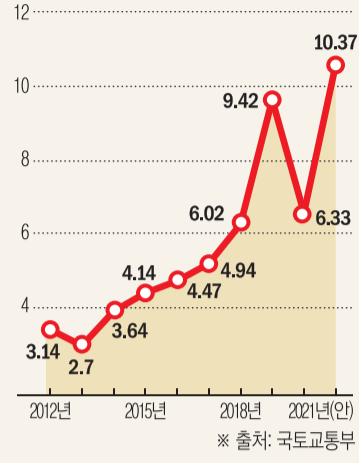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공시지가 상승률 '최고' =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표준지 24만 필지의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전국 3398만 필지 중 각 토지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필지 공시지를 매긴다. 이렇게 책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표로 쓰인다.

국토부 안(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0.4%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12.4%) 이후 13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단위: %)
※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률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주거용지(11.1%)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상업용지(10.1%), 농경지(9.2%), 임야(8.5%), 공업용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큰 폭 상승은 예고된 결과였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지속해서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땅값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공시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는 뜻이다.

◇양양군·군위군, 공시지가 상승 1·2위 = 지역별로 봐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공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양양군으로 올해보다 19.9%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관광 수요가 많아진 데다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軍) 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군위군 공시지기도 15.7% 오르며 상승률 2위에 올랐다. 시도 가운데선 국회·행정기관 이전 가능성이 커진 세종시 상승률(12.4%)이 가장 높았다.

서울에선 강남구(13.8%)와 서초구(12.6%), 영등포구(12.5%)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고가주택이나 대형 오피스 건물이 많아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큰 지역들이다. 내년 서울지역 공시지가는 11.41% 상승했다. 올해 7.89%보다 3.52%포인트 오른 것이다.

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1~3위는 올해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 충무로2가 명동 유니클로 부지가 차지했다. 이들 부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각각 1m²당 2억 650만 원, 1억9900만 원, 1억9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가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 커져 = 과세 표준인 공시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토지 관련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등이 공시지가 영향을 받는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권강수 상가의인 대표는 “상가에 딸린 토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상가 신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상가 임대료도 코로나 정국으로 당장은 올리기 어렵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은 이미 예고돼 있던 상황이라서 이미 거래 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공시가격이 시세에 맞춰 계속 상승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2일까지 받고 2월경 공식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각 지자체, 해당 필지 담당 감정평가사가 접수한다.

박종화 기자 pbell@

‘아기 울음소리’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통계청 ‘10월 인구동향’

10월 출생아 수가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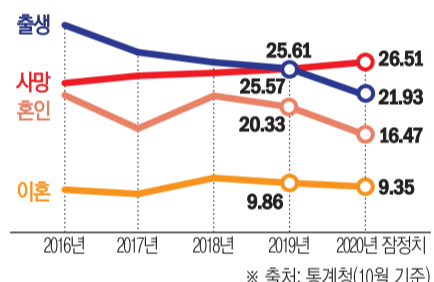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서 10월 출생아 수가 2만1934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17.1%)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에 따라 1~10월 누계 출생아 수도 23만37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했다. 통상 11~12월 출생아 수가 상대적

출생아 전년비 14% 줄어 2.1만명
“코로나로 연기” 혼인 건수 19%↓
인구 자연증가 12개월 연속 감소

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9월 출생아 수 감소 폭(-2.2%)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만큼,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예정됐던 출산이 일부 9

출생·사망·혼인·이혼 건수 추이 (출생·사망 단위: 1000명, 혼인·이혼 단위: 1000건)



월로 앞당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명절에 따른 출산·출생신고 이동이

매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출산일 이동으로 10월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보긴 어렵다.

지역별로는 도지역보다 시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가 가팔랐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 강원은 6666명으로 4.7% 감소에 그쳤지만, 대구는 9763명으로 12.8% 줄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도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65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7%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인구 자연증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1만6473명으로 19.0% 줄었다. 4월 이후 혼인 건수는 6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기존 혼인 건수 감소세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정됐던 결혼식이 밀리거나 취소된 탓이다.

그나마 이혼 건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월에는 9349건으로 5.2%, 1~10월 누계로는 8만8455건으로 4.3% 감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농업의 차원을 높이다

b: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이란?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가치가 곱해져 b: 차산업이 완성됩니다.

1차산업

잘 키운 우리 농산물로

2차산업

농부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3차산업

농촌과 제품을 체험하고 즐기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피해업종에 10만~30만원 결제 시 소비자 20% 혜택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집합과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내년 연초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제한 업종대상 0%대 금리 8000억 원 지원 등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28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들의 고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여 개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도 감면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28일부터 서울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 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준다.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가 넘는다.

서울시, 선결제상품권 1000억 등 소상공인 지원 9000억 투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금리 0%대 용자...8000억 자금 지원
공공상가 1만곳 대상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상품권은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과 영업제한 업종 20만여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1만 원 이상(소비자 10만 원+현금지원 1만 원)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자치구별 지역제한이 있었던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자치구 지역 구분 없이 서울 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업(비결제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씬뱅크, IM샷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 원까

지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만 개 중 제로페이에 가맹된 11만 개 업소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선결제 참여를 할 수 있다. 제로페이에 가맹이 안 된 9만 개 업소 중 참여를 원하는 곳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선결제 참여를 신청하면 제로페이 콜센터에서 연락해 가맹절차를 돕는다.

서울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해 3000만 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용 100%, 연 0.56%의 금리로 용자를 지원한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지원 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 접수를 연말부터 시행한다. 28일 상담을 시작해 새해 첫 영업일인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



“의료인력 이탈 막아주세요” 간호사의 눈물
김정은(오른쪽)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서 남병원 지부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행이 목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가 감면된다.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 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

이 큰 시유재산 임차 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 기간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333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받으면 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 KDI, 1차 재난지원금 정책효과 분석 /

“100만원 받아 30만원 정도 더 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미미”

대면서비스 등 매출 감소세 지속... 피해업종 직접 지원을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업종 매출 증대 효과가 투입예산 대비 26.2~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작았던 업종에 집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직접적 소득지원을 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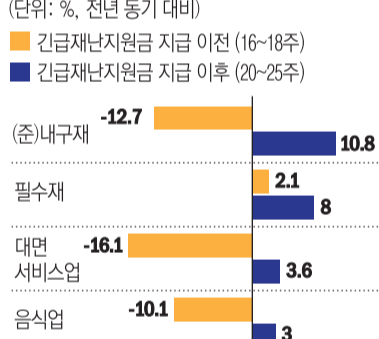
정부는 5월 전 국민에 총 14조 20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해 어려움을 이어졌다. 기존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던 필수재 매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카드 매출을 비교하면 여행업은 전년 동월 대비 61.1% 감소에서 55.6% 감소로, 식료품은 같은 기간 2.5% 증가에서 12.3% 증가로 변화했다.

전국카드 매출 총액을 분석한 결과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가한 카드 매출액이 4조 원으로 추산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투입재정 대비 26.2~36.1% 수준이다. 다만 해당 연구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 사업체 소득 증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 기간 중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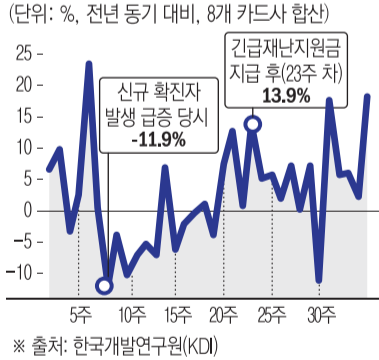
이에 KDI는 매출 증대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 사용 불가업종의 소비가 사용 가능업종의 소비로 대체됐을 경우 매출 증대 효과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카드매출 증감률



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연체 경험 유무별로는 연체를 경험했던 가구의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제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피해가 큰대면 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의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며 “외식, 여행 관련 소비금액이 큰 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많이 감소하고, 확산이 억제되면 감소폭이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 철저한 방역이 소비진작의 조건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단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잠깐! 가짜석유 주유가 걱정되세요?

석유불법유통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석유불법유통이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세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석유불법유통이란? 가짜석유·품질기준부합 제품 판매 행위,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 배달 방식으로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 그 수법이 다양합니다.

석유불법유통 신고 및 포상금 안내

오일콜센터: 1588-5166

- 가짜석유 제조 200만원~1,000만원
- 가짜석유 판매 10만원~100만원
- 정량미달 판매행위 20만원
- 품질저하 LPG 제조 및 판매행위 50만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 신고방법안내 / 포상금 안내 참조

K Petro
한국석유관리원

“자녀 입시비리 모두 유죄...사모펀드 횡령은 무죄”

재판부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동양대 총장 직인 위조도 인정...PC 은닉은 무죄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정 교수 측 “즉각 항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증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업무 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다.

◇7대 스펙 전부 허위·위조 인정=정 교수는 2013~2014년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은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작성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도 위조된 것으로 인정했다. 또 표창장에 기재된 딸의 동양대 청소년문학영재프로그램 참여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해당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5개월이 지나 조교에게 교부한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유·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

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조 씨에게 미국 개 중요 정보를 받아 WFM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혐의와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의 차명 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 =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거인멸 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인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행위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기소 이후 검찰의 임의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4건의 압수수색영장은 첫 기소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발부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종용 기자 deep@



정경심(왼쪽)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조국 재판’ 전방위 수사 당위성 확보

입시비리·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무리한 조사 논란 벗어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주목할 대목은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

를 제기한 후 임의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강제수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법정 다툼에서도 방어 논리로 쓰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수집됐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

의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 해 11월 11일 업무 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조국 사태’로 불리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가 지원한 대학과 대학원에 허위 입시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관계자들에게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토록 한 혐의 등도 있다.

박기명 기자 pgy@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KEPCO

“죄송” 연발 변창흠 ‘사과 청문회’… 野 “사퇴” 與 “전문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용·수의계약 의혹 쏟아져… 국민의힘 “인간의 품격 못갖춰” 변 “역세권 반경 500m, 용적률 300%까지 상향해 주택 공급”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과와 고성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 입구서부터 변 의원 질타 피켓을 들고 맞이하는 등 여야 충돌 속 어수선한 상황에서 변 후보자는 구의역 김 군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로 청문회를 열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유족,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를 두고 “개(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인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

리에 올 게 아니라 김 군과 유가족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질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구의역 사건 피해자 김 군 어머니의 육성을 들었다. 이후 변 후보자를 향해 “김 군이 실수로 죽었냐”며 “역지사지해서 부모 입장이면 용서가 되겠냐”고 물었다. 심 의원은 이날 변 후보자의 답변 후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작성, 낙하산 채용 등의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환경공간학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한 의혹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으로 입장하는 길 옆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사장 재임 시절 수의계약 약 100~125건 중 해당 학회와 맺은 수의계약은 한 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외중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변 후보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사전질문서 답변 중 일부가 허위인 사실도 드러났다. 세금, 과태료 등의 경력이 “아니오”라고 답했

지만, 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바쁘게 살다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희국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즉시 자진사퇴하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용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장을 정쟁의 자리로 변질시키지 말고, 정책에 대해서 혐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국민들께 밝혀드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그는 “역세권의 반경을 500미터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 역세권 면적을 500미터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동호 기자 sorahosi@
박준상 기자 joooon@

전세 1.2~2.1%, 월세 1~1.3% 저리대출 내년 55만5000명 구직자 일자리 지원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대 미혼 청년에 주거급여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고용 완화를 꾀는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내년 수도권에 9000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리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약 5만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약 2만호, 기숙사형 약 7000호 등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4만 6000호 정도는 수도권에, 나머지 3만 900호 정도는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엔 수도권에 9000호, 지방에 6000호가량의 공급이 예상되며 2025년까지 매년 비슷한 물량을 공급할 전망이다. 이 주택엔 책상·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 품질을 높인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 원), 이사비(20만 원), 생활집기(20만 원) 등 이주비용 패키지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도 월평균 소득을 185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동반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청년의 부담도 완화해 준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1.0~1.3%)을 저금리 지원한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월평균 15만 4000원의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

5년 후 달라지는 청년의 삶	
- 2025년까지 '128만 명+α' 청년구직자 지원 (코로나19 극복 55.5만 명 지원)	* 출처: 정부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 청년주택 27만3000호 공급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 43만5000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 희망저축계좌 통합·신설 (10만 명 자산 형성 지원)	
- 매달 한 번 문화생활 지원	
- 청년 마음건강 비우쳐 지원	
-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부담 제로화	
- 미래 신산업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 청년 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로 했다.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28만 명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우선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5만 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 6000명 △공공기관 체험일자리 2만 2000명을 지원한다.

또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2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산업 분야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창업자금 800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창업펀드 7500억 원을 조성하며, 2024년까지 청년창업 우대보증을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장학금 대상자는 올해 2940명에서 내년 508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예술인 지원 자격을 완화(연극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 공연을 최근 2년간 1편 이상 공연 등)해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문학·시각·공연 등 8대 분야의 차세대 청년예술가 작품활동을 돕기로 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롯데칠성음료

린산속취해소시대
속취해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개수깡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유통인대원 / 저산원 롯데칠성음료(주)

제주산 원료 가지 함유
(감귤, 녹차, 감태, 톳, 모자반, 미역, 우뚝가시리)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올바르게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 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 2025년부터 기금 적자 전환 특고·플랫폼 편입 땀 가중 기존 가입자·사업주도 부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예술인	2020년 12월
신재보험 적용 직종 ± α	2021년 7월
1차 플랫폼직종	2022년 1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	2022년 7월
자영업자(사회적 합의 시 적용)	2021년 7월
임시·일용직 등	2020년 12월

*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이 2025년까지 시행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도 실직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돼 고용 안정감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쇼크로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확 쪼그라든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기금은 3조2602억 원의 적자(수입-지출)가 예상된다. 작년 2조877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 1조 원 넘게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이다. 2017년 10조 원 넘게 쌓여 있던 기금 누적 적립금도 올해 말 4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된다. 향후 기금 재정 전망도 암울하다. 정책처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해당 기금이 2021~2024년 흑자를 보지만 2025년부터 적자(-176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여기에 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더해진다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입직·이직이 자유로운 특고 등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에 편입되면 결과적으로 기금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돼 기존 가입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올린 바 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면 정부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교수는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기금 부족 때마다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린다면 국민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고용 쇼크로 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늘자 5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기금 부족분을 채워줬

다. 또 저소득 특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59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과 사업주보다 특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

고 강력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추진은 바람직하나 특고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사업주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기보다 소득 정도에 따라 가입자가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4100원으로 인하

대구부산은 5000원

24일 0시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52% 인하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도 5700원에서 4100원으로 28% 낮아진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정도로 대비 2018년 1.43배, 2020년(1단계) 1.30배, 2022년(2단계) 1.10배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상 1단계 인하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

특히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

라 요금 편차가 매우 커서 불편하고 비용 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여 이러한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km, 4차로→6차로)를 착수해 향후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HMM 등 5개 국적선사 '해운동맹'

동남아 항로 협력...과당경쟁 해소

HMM, SM상선,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5개 국적선사가 해운동맹을 맺고 동남아 항로를 시작으로 협력이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3일 5개 국적 정기선사가 참여하는 한국형 해운동맹(이하 K-얼라이언스)을 구성하기 위한 선사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얼라이언스에는 동남아 항로를 운항 중인 11개 국적선사 중 일차적으로 한국발 동남아 항로 선박량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5개 선사가 우선 참여한다.

서정호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적선사만으로 구성된 해운동맹을 맺는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발 동남아 항로 정기선 시장에서 국내외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량은 약 48만 TEU로 이중 우리 선사들은 40%에 해당하는 약 19만 TEU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점차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K-얼라이언스를 구성하면 중복된 운항 일정 조정으로 과당경쟁이 해소되고 신규항로 개설로 운항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얼라이언스는 향후 아시아 역내 외국적 선사, '디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 아시아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K푸드 해외서 인기...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효과 '쏠쏠'

전통주 美 수출 전년비 42% ↑ 中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개설 아세안 수출상담회·체험행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 K-Food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는 알리바바와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아세안에서는 비대면 상담회 등을 통해 맞춤형 수출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올해 미국에서는 흡술, 흡족이 대세를 이루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전통주와 안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한류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전통주와 HMR을 연계해 우리 술의 소비문화를 현지에 전파했고, 랜선 막걸리 만들기 체험 행사와 같은 쌍방향 온라인 행사도 꾸준히 열리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K-Food Fai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명 유튜브의 한국 전통주 소개 라이브 방송에는 실시간으로 약 4000명이 참가했고, 파워 인플루언서 아담 라구시아 교수의 막걸리 소개 영상은 17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온라인몰인 아마존에서는 코로나19로 더욱 관심이 높아진 한국 간편식을 판매하는 'HMR K-Food' 특별 기획전도 열렸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11월 기준 한국

의 주류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미국으로의 전통주 수출은 35% 증가해 47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체 대미 농수산물 수출액은 11월까지 30% 이상 증가했고, 역대 최대치인 1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근 aT 식품수출이사는 "랜선 이벤트를 통해 막걸리 만들기 체험과 문배술, 우렁이쌀 청주 등 다양한 우리술을 소개할

계획"이라며 "삼계탕·떡볶이 시식도 진행해 한국식품에 대한 2030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성장률이 높은 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소매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aT는 코로나로 인해 연초 수출이 감소한 중국 시장 수출회복을 위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일반유통매장 중심에서 알리바바, 핀둬둬, 징둥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한국농수산물 진출을 가속화했다.

7월에는 중국의 O2O(Online to Offline) 선두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허마센싱 앱에 한국식품관을 개설, 한국미식체험주간을 개최해 행사기간 약 4억3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8월에는 중국 내 1위 공동구매 플랫폼인 핀둬둬에 한국관을 개설하고 한중 수교 28주년을 기념해 24일 진행된 라이브 판촉을 통해 8300만 원의 매출을 이끌어냈다. 방송은 약 53만 명이 시청했다.

11월에는 중국 내 최대 B2C 플랫폼인 티몰 내 aT가 판매품목 조달부터 판매, 배송까지 직접 관리하는 한국농수산물 직영몰

을 개설했다. 11월 11일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 행사와 연계, 대대적인 판촉을 실시해 약 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aT는 티몰 한국 농수산물직영몰을 적극 활용해 우리 농수산물 기업의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신규 유품목의 입점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농수산물에 관심이 높은 아세안에서는 비대면 수출상담회, 소비자체험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얼어붙은 현지 K-Food 소비심리 회복에 나섰다. 베트남은 10월 하노이·호찌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선물문화 공략하기 위한 '한국 프리미엄 선물세트' 기프트 테마관을 운영했다.

태국 방콕 K-Food Fair 온라인 수출상담회(11월)에서는 딸기·배·샤인머스켓 등 신선 프리미엄 과일뿐만 아니라 집콕족을 겨냥한 장류, 즉석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았고, 12월 열린 방콕 소비자 체험행사는 한국 인기드라마에 등장한 식품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오픈키친 등을 활용해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였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공동기획 : 농림축산식품부·aT

선한 영향력

= 마스크로 시간을 앞당기는 능력

마스크를 챙기는 오늘이
그리운 일상을 하루 빨리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될 수 있게

서로를 배려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美, 9000억 달러 추가 부양책 백지화 위기

트럼프, 퇴임 한달 앞두고 몽니
“수치스럽고 낭비적 항목 가득
현금 지급 1인당 3배로 늘려야”

트위터 동영상 메시지 공개 직후
S&P500지수 선물 0.5%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전날 상·하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출처: 트럼프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약 998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백지화 우려에 정국은 물론 시장까지 크게 동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전날 상·하원에서 가결 처리된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책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내 책상에 올라온 법안은 예상과 정말로 달랐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며 “낭비적이고 불필

요한 항목으로 가득 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 명칭이 코로나19 구제책이지만, 실제로는 코로나와 거의 관련이 없었다”며 캄보디아와 버마(미얀마), 이집트, 파나마 등에 대한 해외 원조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대다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혜택은 터무니없이 적었다”며 “1인당 600달러인 개인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부부는 총 4000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의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한다”며 “적절한 법안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코로나 구제 패키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혹시 내 정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해외 원조는 경기부양안이 아니라 정기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제정되는 것이라고 트럼프의 오

류를 지적했다.

트럼프의 동영상 메시지가 공개된 후 미국 증시의 S&P500지수 선물은 0.5% 하락했다.

트럼프가 동영상에서 거부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블룸버그와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모두 거부권 행사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풀이했다. 전날 의회에서는 경기부양책은 물론 내년 9월까지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통과됐다. 트럼프가 28일까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날 자정 이후 정부 섯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일어나게 된다. 코로나19 부양책은 내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 전 수정하지 못하면 폐기될 위험이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전날 상·하원에서 경기부양안과 예산안을 가결했을 때 찬성한 의원 수는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은 불안정하지만, 일자리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법안이 빨리 성립할수록 좋다”고 트럼프와 반대되는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트럼프 요청에 동의했다. 그는 트럼프의 동영상을 리트윗하면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현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마침내 대통령이 2000달러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만장일치로 이 문제를 꺼낼 준비가 됐다. 해보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2000달러 직접 지급 방안을 통과시킬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위터 ‘대통령 공식계정 팔로어’ 삭제하기로... 바이든 정권, 국정 운영 변수되나

미국 정권교체를 앞두고 트위터가 이례적인 조치를 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국 대통령 공식 계정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 팔로어를 전부 삭제하고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대통령 공식 계정 팔로어가 ‘제로(0)’인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바이든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 불복 행보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계정 팔로어 수는 88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추종자들에게 ‘사기 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한다면 새 정권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대통령 공식 계정인 ‘@POTUS’와 ‘@WhiteHouse’, 영부인 계정 ‘@FLOTUS’ 등을 넘기면서 현재 팔로어를 전부 삭제할 계획이라고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 알려졌다.

이는 4년 전과 다른 전례를 만드는 것이다. 2016년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Barack Obama 행정부에서 쓰던 공식 계정을 물려받았다. 당연히 팔로

트럼프, 전 정권서 물려받아
개인 계정 팔로어도 8800만명
팔로어 없이 출발하는 바이든
‘사기 선거’ 의혹 지속 땀 부담

어도 따라왔다. 22일 현재 @POTUS 팔로어는 3320만 명, @WhiteHouse는 2600만 명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후 2009년 3월 개설한 개인 계정을 계속 사용했고, 대통령 공식 계정은 백악관 직원들이 관리해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 팔로어는 880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는 오바마 정권에서 물려받은 팔로어도 포함됐을 수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당일만 해도 @POTUS는 팔로어가 1370만 명이었고, 계정이 트럼프 측으로 넘어간 후에는 그 수가 400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1440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WSJ는 “당시 계정 이전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 때문에 팔로어가 갑자기 줄었다”며 “또 팔로어를 취소한 사용자가 계속 남아 있는 등의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트위터가 미국 대통령 공식 계정을 리셋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런 기술 오류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팔로어를 바이든에게 넘기는 것을 거부해서 트위터가 새 방침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바이든 인수위의 디지털 국장인 롭 플래허티는 “이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트위터의 결정”이라고 부인했다. 니콜라스 파실리오 트위터 대변인은 “우리는 공식 계정의 전환과 관련, 바이든 정권인수위와 다방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음모론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급기야 ‘사기 선거 환상에 사로잡혔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WSJ는 “트럼프가 민간인 신분이 되면 이전과 같은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일 때는 트위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는 ‘경고 라벨’을 붙였지만, 이후에는 아예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는 각국 정상이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발언을 명확하게 확인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수족관에 깜짝 등장한 산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아 KLCC'에서 23일 한 어린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족관에 깜짝 등장한 산타클로스와 인사하고 있다. 올해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로 이동을 제한해 고풍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알라룸푸르/AFP연합뉴스**

‘전기차 생산’ 견제구 날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애플에 할값 매각할 뻔”

“10분의 1가격에 매각 논의 불구
팀 쿡 CEO가 만남 자체 거절”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회사를 애플에 할값에 넘길 뻔한 일화를 털어냈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는 애플에 견제구를 날렸다는 평가다.

머스크 CEO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모델3’의 암흑기 때 현재의 10분의 1 값에 테슬라 인수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팀 쿡 애플 CEO와 만나려고 했다. 그러나 팀 쿡이 만남을 거절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인 접촉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델3’ 출시 이후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7~2018년으로 추정된다.

테슬라의 첫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는 당시 ‘돈 먹는 하마’였다. 극심한 생산-배송 차질로 비용이 많이 발생해 테슬라의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 어려움을 해를 넘겨 계속됐고 현금 고갈로 파산설까지 불거졌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네바다주 배터리 공장 자동생산 시스템과 관련해 “생산 지옥에 빠졌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다가 테슬라는 2019년 3분기부터 반등에 성공, 올해 기술주 열풍으로 날개를 달고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약 665조3400억 원)가 넘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우뚝 섰다.

불과 3년 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인 600억 달러에 회사를 애플에 넘겼다면

머스크 인생 최악의 ‘흑역사’로 남을 뻔한 것이다.

머스크의 발언은 전날 ‘2024년 생산을 목표로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개시를 목표로 자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내 셀 용량을 키우고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는 대신, 활성 물질을 더 넣어 차량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게 배터리를 설계했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과열 가능성이 적은 리튬산철(LFP)배터리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머스크는 애플의 리튬산철배터리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상하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이미 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최대 전압이 낮아(파우치와 모듈을 없앤) ‘모노 셀’은 전기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어 붙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배터리 찌꺼기?”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과거 자신의 구매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쿡을 향해 통쾌한 복수를 한 셈이다.

애플과 테슬라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여러 품종이 실리콘밸리에서 떠돌아다녔다. 2015년 애플 주주총회에서는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주주 발언에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jyoung2@**

美, 화이자 백신 최대 1억 회분 추가 구매

미국 정부가 자국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천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강대국의 이른바 ‘땡기기’는 거침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이자와 수천만 회분 투여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은 현재 성사 직전까지 진행됐으며, 이르면 23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최대 1억 회분 정도의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약에는 화이자가 백신의 원료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돕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의 협상에서 내년 4~6월에 백신 1억 회분을 더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화이자가 원료가 확보돼야 7000만 회분 이상을 만들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방 생산물자법(DPA)을 발동, 화이자가 백신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9가지 특수 제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억 회분의 물량을 선점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화이자로부터 내년 1분기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모더나와는 내년

1, 2분기에 각각 1억 회분의 백신을 인도받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화이자가 미국 정부의 요청대로 1억 회분을 추가로 더 제공한다면 총 4억 회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화이자 16세 이상, 모더나 18세 이상)의 미국인 2억6000만 명 가운데 약 77%인 2억 명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물량이다. 여기에 미국이 이미 계약해 놓은 다른 회사의 백신이 추가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승인을 받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인 대다수가 백신을 맞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 및 보건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화이자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은 뒤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금융권 취약점 고스란히 노출”

금감원장 송년간담회

“상품 설계·판매 내부통제 안돼 감독장치 제대로 대응 못해 송구 남은 임기 동안 소비자 보호 총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열린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독장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올 한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윤 원장은 23일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올해 소회를 묻는 질문에 “올해는 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19 대응 두 가지가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는 한국금융이 갖고 있는 취약한 단면을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았고 사기도 있었다. 판매사는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놓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사모펀드가 일반 장구를 통해 판매되면서 감독장치가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도 기억에 남는 사안 중 하나로 꼽았다. 윤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업무에 코로나가 큰 영향 미쳤다. 한편으로는 실물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금감원은 금융사와 더불어 지원 노력을 했음에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검사, 종합검사서 언택트 방식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앞으로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에도 영향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윤 원장은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의 목표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인해 금융시

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원력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나아가면 금융산업들이 실물경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서 코로나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면 하고 감독자로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며 “남은 6개월 동안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 조직 개편 방향도 인력증원을 통한 영향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감사원이나 국가의 상위기구로부터 나름 통제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 져야한다”면서 “우리가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금감원)의 책무를 방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예산의 독립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일부인 만큼 예산의 독립만으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체계개편 없는 예산 독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원화된 감독체계 때문에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라며 “금융감독의 비효율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일들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 sjy@

신한금융, ESG 스타트업 육성 시동

신한퓨처스랩 7-1기 모집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퓨처스랩’은 내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스타트업 영역을 신설해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금융권 최초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은 이번 7-1기 모집부터 ESG 영역을 추가했다. 기존에 선발했던 핀테크, 딥테크, 콘텐츠, 헬스케어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회문제 해결 등 ESG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술력이 우수한 스타트업도 선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했다. 신한금융은 현재까지 국내·외 육성 기업에 331억 원을 직·간

접 투자해 왔다.

이번에 선발된 기업에는 스타트업 단계별 육성 및 투자, 사무공간 대여,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스 멤버십(S-Membership)’과 함께 신한금융 그룹사, 대기업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또 베트남 지역사회 플랫폼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이 협력해 현지 주민들의 디지털 교육격차, 청년 구직활동, 보건 및 건강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한 퓨처스 솔루션’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시장 개척을 돕고, 베트남 현지에는 한국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수빈 기자 bean@

우리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금융 주선

우리은행은 새만금희망태양광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민관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공동 대표주간사를 맡았다. 삼성생명,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함께 1196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새만금희망태양광에 제공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선포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그린 뉴딜 사

업이다. 99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금융주선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다양한 금융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기업銀-네이버클라우드 ‘디지털 금융 혁신’ 동맹

IBK기업은행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네이버 및 계열사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 중 은행과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또 필요할 경우 두 회사가 직접 기술 협업을 하는 것도 추진할 계

획이다.

양사는 금융 관련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서로 추천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풀을 공유하고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혁신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 랩(1st Lab)’의 협업 기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IBK 퍼스트 랩’ 참여 기업이 희망하면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이용권, 기술 컨설팅 등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안타. 티레이더가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심박만 화 화 심박만 화 화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예매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출금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일 제9-62호(2019.02.28)

배터리 이어 모터 제조...구광모 '종합 전장' 승부수

LG전자 'VS사업부·ZKW·마그나' 부품 3개축 완성
ZKW 인수 2년 만에 최대 투자... '규모의 경제' 실현

LG전자가 전장부품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 재계는 LG전자가 세계 3위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23일 발표한 것을 놓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전장 로드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또 합작법인이 독립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성장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마그나는 풍부한 사업경험과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포함해 파워트레인 분야의 통합시스템 설계, 검증 등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모터, 인버터 등에 대한 기술력 및 제조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합작법인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가칭)은 마그나는 물론 마그나의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조기에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앞서 LG전자는 전기차인 쉐보레(Chevrolet) 볼트(Bolt) EV와 재규어 I-PACE 등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LG전자는 VS사업본부, ZKW, LG 마그나 합작법인 등 자동차 부품 사업의 3개 축을 완성했다.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래성장동력이자 캐시카우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VS(Vehicle Components Solutions) 사업본부(당시 VC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어 2018년 8월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기업인 ZKW



를 11억 유로(약 1조1400억 원)를 들여 인수했다. ZKW는 고휘도 LED 주간주행 램프, 레이저 헤드램프와 같은 차세대 광원을 탑재한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다. 생산량 기준 프리미엄 헤드램프

프 시장 세계 5위권에 있다. LG전자는 2019년 말 VS사업본부 내 차량용 램프 사업을 ZKW로 이관해 통합했다.

합작법인 출범을 기점으로 LG전자는 VS사업본부(인포테인먼트 중심), ZKW(램프),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파워트레인) 등 3개 축으로 나눠 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모두의 실적은 VS

사업본부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에 합산된다.

구광모 회장의 새판짜기도 힘을 얻고 있다. 구 회장 취임 후 LG는 투자와 인수·합병(M&A), 차세대 전장부품 발굴을 통해 전장 로드맵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특히, LG 계열사들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생태계와 전기차 배터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및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콘셉트 모델을 개발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선 자율주행 및 전장 관련 스타트업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다. LG화학은 전지 사업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했다.

구광모 회장은 최근 LG그룹 사장단 워크숍에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가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해 가자"고 강조한 바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제네시스 'GV70' 하루 만에 1만대 계약
제네시스의 첫 중형 SUV인 GV70이 계약 출시 하루 만에 1만대를 돌파했다. 23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GV70은 8일 전 세계에 공개된 뒤 전날부터 계약을 받았다. 고객 인도는 내년 초부터 이뤄진다.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가솔린 2.5 터보 4791만 원 △3.5 터보 5724만 원 △디젤 2.2 5036만 원부터다. 사진제공 제네시스

삼성청년SW아카데미, 2년간 취업자 1000명 배출

3기 수료...10명 중 3명 비전공자

삼성전자가 청년 취업프로그램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를 통해 2년간 1000명이 넘는 취업자를 배출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서울 멀티캠퍼스 교육센터에서 삼성청년SW아카데미 3기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료식에는 서울·대전·광주·구미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수료생 가운데 4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올해 1월부터 교육에 들어간 3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1년간의 교육을 수료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3기까지 1623명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1009명이 취업해 62%의 취업률을 보였다.

올 7월에 입과해 내년 6월 수료 예정인 4기 500명 가운데서도 이미 91명이 교육 6개월여 만에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LG CNS, 카카오, 신세계아이앤씨, SK주식회사 C&C, 롯데정보통신, 네이버 등 IT 기업에 취업했다. 또, 현대자동차,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현대

카드 등 다양한 대기업과 금융권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들이 취업한 기업의 수는 37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 중 31%는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다.

신한은행, 신세계아이앤씨, 다날, 인바디 등을 비롯한 60여 개 기업에서는 △서류심사 면제 △코딩테스트 면제 △삼성청년SW아카데미 전용 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 시 교육생들을 우대하고 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는 현재 500명이 입과한 4기가 교육 중이며, 내년 1월부터 5기 750명이 입과 예정이다. 지난해 8월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청년SW아카데미 광주캠퍼스를 방문해 교육생들을 격려한 바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차, 러시아 30만대 생산체제 구축

GM 공장 인수...점유율 1위 박차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GM(제너럴모터스) 공장 인수 절차를 끝냈다.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확보해 현지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러시아 법인의 현지 GM 공장 인수는 지난달 초 완료됐다. GM이 2008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한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대 규모다. 현지 경기 침체로 판매가 부진해지자 GM은 2015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7월 러시아연방반독점청(FAS)에 인수 신청서를 제출했다. FAS는 8월에 현대차가 GM 공장 지분 94.83%를 매입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현대차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러시아 시장 공략을 확대해 현지 점유율 1위에 오를 계획이다. 올해 1~11월을 기준으로 이미 기아차(13.5%)는 현지 점유율 2위, 현대차(11%)는 3위를 기록하며 1위인 현지 업체 아브토바즈(38.6%)를 바짝 뒤쫓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j@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현지 전략형 소형 세단 솔라리스(엑센트), 중형 SUV 크레타를 생산해 러시아 시장과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기아차의 소형 세단 리오(프라이드)도 함께 생산한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16년 130만대 수준이던 러시아의 신차 판매량은 2017년 159만대, 2018년 180만대, 지난해 176만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2.5대에 불과하고 인구도 1억 5000만 명에 달해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분류된다.

현지에 진출한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엔진공장을 짓고 있다. 약 4만평 규모의 부지에 지어지는 이 공장은 내년 10월부터 연 24만대 규모의 승용차 엔진을 생산할 계획이다.

알렉세이 칼리체프 현대차 러시아법인 사업총괄은 "이번에 인수한 GM 공장은 현대차 러시아법인의 두 번째 생산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일정을 공개하기엔 이르지만,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 시나리오를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가 3남 김동선, 3년 만에 경영 복귀

한화에너지 글로벌 전략 담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사진) 전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이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 담당으로 재입사했다. 퇴사한 지 3년 만에 상무보로 승진해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이다.

2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상무보는 한화에너지로 복귀하며 이 회사의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사업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

김상무보는 2017년 한화건설을 퇴사한 후 독일로 떠나 요식업을 하다가 올해 사모투자펀드운용사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



트먼트에 입사했으나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지며 한화그룹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상무보는 한화건설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을 깨고 한화에너지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김상무보는 미국 테프트스쿨, 다트머스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한 경험을 토대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화에너지는 김상무보의 이러

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한화건설 해외토건 사업본부 근무 및 신성장전략팀장 경험과 최근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재직 경험이 더해져 한화에너지의 글로벌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무보는 글로벌전략 담당으로서 한화에너지의 세계 시장 진출을 이끌 예정이다. 향후 세계 전력 시장 발전원 구성이 신재생 에너지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취향가전' 비스포크 큐브 에어 출시

교체 가능한 8가지 전면패널 채택

삼성전자가 나만의 취향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소비자들을 위한 '취향가전'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공기정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BESPOKE 큐브TM Air)'를 2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고가 는 기능과 디자인에 따라 130만~140만 원

이다. 비스포크 큐브 에어는 차별화된 정정 능력뿐 아니라 삼성전자만의 디자인 고유성이 돋보이는 비스포크 스타일을 적용했고, 기능 부분에서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세심하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교체 가능한 전면 패널을 적용했다. 패널은 헤링본과 스트라이프 등 2가지 패턴과 그레이·베이지·테라코타·딥그린 등 4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총 8가지가 제공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우리금융그룹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 희망, 우리가 선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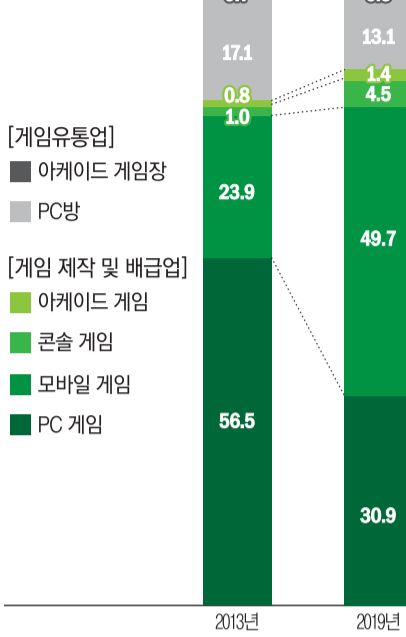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중소기업 취업청년 가구의 전세안심대출보증은 최대100%) / 단, 일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최대70%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신혼가구	2재녀 이상가구	일반가구
최대 1억원 연 1.2% 금리	최대 2억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1% 금리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1.9% 금리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4% 금리

▶ 상기내용은 2020. 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 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 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99-0800,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압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12.14 준법감시인-2984 심의필(유효기간 : 2021.12.31)

게임시장 절반 장악한 모바일... “PC·콘솔도 키워야”

국내 게임 시장의 분야별 비중 추이 (단위: %)



국내 게임 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PC 온라인 게임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게임산업의 동향을 담아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게임 시장 중 매출 기준 모바일 게임의 점유율은 49.7%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은 7조7399억 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 매출액 15조5750억 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반면 PC 온라인 게임의 매출은 4조8054억 원으로 30.9%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점유율로는 전체 게임 시장의 2위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수치다.

작년 매출 7.7兆... PC온라인 게임 4.8兆 감소세
비용 적게 들고 수익창출 효과 커 개발·투자 집중
업계 “게임산업 성장 위해선 플랫폼 다양화 절실”

모바일 게임과 PC 온라인 게임 외에 PC방(13.1%), 콘솔(4.5%), 아케이드 게임(1.4%)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PC 온라인 게임(49.6%) 및 모바일 게임(32.5%)의 점유율과 상반되는 수치다. 2013년에는 PC 온라인 게임 비중이 56.5%로 모바일 게임 23.9%에 비해 크게 앞섰다.

일반적으로 PC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은 개발 기간과 인력소모, 비용 등이 적게 들어간다. 결과물 역시 모바일 게임이 흥행에 수월하고 수익창출 효과가 크

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PC 온라인 게임을 개발해 출시하기도 하지만 모바일 게임보다 흥행이 떨어진다

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PC 온라인 게임은 1%의 성장률에 그치지만, 모바일 게임은 9.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PC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에 치중하고 있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게임백서는 “PC 온라인 게임은 2018년

반짝 흥행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많은 게임사가 PC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에 더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 전반으로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면서 개발자들 역시 모바일 게임 개발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고 매출 등 효율도 좋을 때문이다. 이에 PC 온라인 게임 개발 인력이 줄어들면서, 자칫 국내 PC 게임 시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국내 게임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게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PC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방송법 개정안’ 요금 규제 완화될까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③(끝) 방송법 개정안에 촉각

미디어 산업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완화로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플랫폼 사업자(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PTV 요금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재송신 수수료(CPS) 인상 등 콘텐츠 투자 여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마무리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현재 승인제인 요금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부분이다.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더 다양한 채널 구성

요금 ‘승인제→신고제’ 전환
이용자 습관·선호도에 맞춘
다양한 구성 상품 출시 가능
유료방송업계 수익 개선 기대

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

방송 업계에서는 낮은 유료방송 가격이 CPS,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다. 이달 한국방송학회의 세미나에서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이 너무 적다고 진단했다.

천 센터장은 “과도하게 낮은 유료방송 가격은 방송뿐 아니라 전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채널당 이용요금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의 낮은 수익은 콘텐츠 대가와 관련해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 요금 규제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더 다양한 유료방송 상품이 나올 수 있고, 수익 추구의 길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IPTV 협회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채널은 많아도 볼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사업자들이 이를 반영해 단순 채널 수가 아니라 이용자의 습관이나 선호도에 맞게끔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요금 개선의 여지도 더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고제가 된다고 해서 어떤 상품든 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도 최소 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소 채널 상품이라는 것은 즉, 가격이 제일 낮은 상품이나 기본형 상품의 가격선을 해치는 상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승인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IPTV 업계는 “무늬만 신고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200개 채널에 1만5000원 상품이 있는데 100개 채널에 2만 원 상품을 출시하고 싶을 때 신고제가 아닌 승인제를 적용해 궁극적으로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신고제가 돼도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KT, 가족 결합 기반 ‘안심대리인’ 서비스

KT는 23일 홀코노미 캠페인의 여섯 번째 서비스로 ‘안심대리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결합 가족에게 통신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장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KT는 23일 홀코노미 캠페인의 여섯 번째 서비스로 ‘안심대리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결합 가족에게 통신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장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 KT

내년 中企 정책자금 5조4100억 “K-뉴딜 등 핵심분야 적극 지원”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5조4100억 원이 공급된다. 이중 절반 이상인 3조 원(57%)을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자금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한다.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 2조2500억 원, 성장기 2조4100억 원, 재도약기 75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이뤄진다.

분야별로는 △디지털·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 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온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 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관련 기술 등 그린 뉴딜 분야에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 규제자유특구(24개) 대상 기업에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을 운영(매년 100개사, 1000억 원)한다.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 원을 배정한다.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유형별로는 △창업기업(2조2500억 원) △성장기업(1조9100억 원) △수출기업(5000억 원) △유동성 위기 기업(5000억 원)에 따라 배정한다. 특히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K)-수출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 원,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 원을 신설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엔씨 신작 ‘트릭스터M’ 사전예약 300만 돌파

진입장벽 낮춰 부담없이 플레이

엔씨소프트는 신작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트릭스터M’이 사전 예약자 300만을 돌파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트릭스터M은 10월 28일 사전 예약을 시작해 이틀 만에 100만을 넘어섰으며 9일 만에 200만, 한 달 만에 300만을 기록했다.

트릭스터M은 엔트리브소프트가 12년간 서비스한 ‘트릭스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개발되는 게임이다. 수준 높은 2D 그래픽과 독특한 드릴 액션 등 원작의 주요 요소를 계승한다. 캐주얼한 게임성에 엔씨(NC)의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이 결합해 ‘귀여운 리니지’라는 별명도 있다.

사전예약자 300만 명 달성은 모바일 게임의 흥행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



체 시장에서도 300만 이상을 기록한 게임은 드물며, 하드코어 게임이라고 불리는 대형 MMORPG 장르에서만 볼 수 있었다. 트릭스터M과 같이 캐주얼한 게임에서 300만 이상의 사전예약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트릭스터M의 이와 같은 사전 흥행은 원작 팬뿐 아니라 새로운 게임을 기대하는 신규 이용자가 몰려든 결과로 풀이된다. 트릭스터M은 출시 소식을 알릴 때부터 원작의 게임성을 살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많

은 사람이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작이 가진 가벼운 분위기에 엔씨(NC) 특유의 MMORPG 요소를 더해 다양한 이용자층이 공존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MMORPG 장르를 수용할 미드코어 유저층이 확대된 것도 흥행의 이유로 분석된다. 트릭스터M은 현재 출시를 앞두고 브랜드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며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전예약에 참여한 경우 다양한 보상을 얻고,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트릭스터M의 사전예약자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며 “몇 년 동안 MMORPG를 수용하는 이용자층이 확대됐고, 이 미드코어 유저를 흡수할 게임이 트릭스터M”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코로나發 홈파티... 한정판 와인·고기·디저트 '불티'

‘팔도비빔면 윈터에디션’ 완판 현대홈쇼핑 ‘자연방목 스테이크’ 3300세트 40분 만에 조기매진 CU 100만원대 샤또 와인 동나



코로나19로 집콕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한정판 식품의 ‘완판 신화’가 줄을 잇고 있다. 집밥과 혼술에 이어 연말 홈파티까지 트렌드로 자리잡은 덕분이다. 특히 일정 수량만 판매하는 한정판은 연말 홈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팔도는 지난달 한정판으로 선보인 ‘팔도 비빔면 윈터에디션’ (사진)이 출시 한 달 만에 500만개 완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팔도는 조기 완판 성원에 힘입어 300만개의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2018년 첫 선을 보인 ‘비빔면 윈터에디션’은 매년 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해에 50일만에 완판을 기록한 후 지난해 40일, 올해는 30일로 완판 기간을 매년 단축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적용한 ‘어묵국물 스프’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지난해까지는 우동 국물스프를 넣었으나, 매콤한 메뉴와 어묵국물의 조화를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최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대상홈쇼핑의 자회사 디에스앤이 16일 현대홈쇼핑에 론칭한 ‘자연방목 스테이크’는 준비 물량인 3300세트가 방송 40분 만에 조기 매진을 기록했다.

‘자연방목 스테이크’는 디에스앤이 국내

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프리미엄 육가공 제품으로 뉴질랜드에서 100% 자연방목으로 키운 소의 채갈 부위를 사용했다. 현대홈쇼핑 론칭 방송에서는 △채갈 스테이크 (150g) 9팩 △채갈 큐브 스테이크 (150g) 1팩 △골드키위 스테이크 소스 (220g) 1병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다.

빙그레가 2018년 선보인 요플레 토핑의 누적 판매량은 최근 4000만개를 돌파했다. 요거트에 견과류, 시리얼 등 첨가물을 넣어 먹을 수 있게 만든 플립 요거트 시장은 요플레 토핑 출시 이후 2018년 300억원 규모에서 현재 7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빙그레측은 올해 집밥 열풍으로 누적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홈파티를 위한 제품 판매도 크게 늘었다. 신세계푸드의 온라인 전용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베키아에누보’에서는 케이크 판매 최대 성수기인 12월 케이크 판매량이 381%나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연말 홈파티나 크리스마스 파티용 케이크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홈파티 주인공인 주류의 인기도 거셌다. 서울장수주식회사가 9월 출시한 유자 막걸리 ‘달빛유자’는 출시 100일만에 누적

판매량 10만병을 돌파했다. 일반 막걸리의 3배 가량 비싼 3000원대 프리미엄 막걸리임에도 단기간에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디저트 막걸리’라는 개념을 도입해 MZ세대를 공략한 전략이 주효했다. 출시 후 약 2개월간 서울 은평구에서만 판매하고, 11월부터 전국 CU 편의점으로 유통망을 확대한 달빛유자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약 2주간 발주가 중단되는 등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오비맥주의 비알코올 음료 ‘카스 0.0’은 온라인에서 완판신화를 썼다. 지난 달 26일 쿠팡에 입점한 카스 0.0은 판매 7일 만에 초도 물량 5282박스 완판을 기록했다. 오비맥주는 일시 품절 사태를 일으킨 카스 0.0 추가 수량을 공급해 10일부터 정상 판매를 재개했다.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지만 카스 0.0은 알콜이 함유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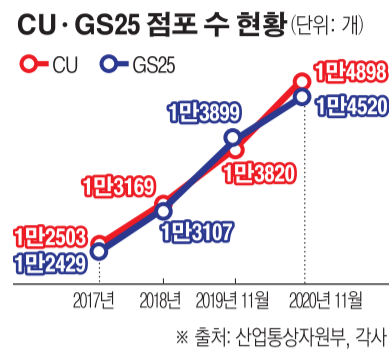
고가 와인도 완판 리스트에 올랐다. CU가 8월 CU 멤버십 앱 ‘포켓CU’에서 원하는 상품을 미리 주문해 점포에서 픽업하는 O2O 서비스 CU와인샵을 통해 선보인 프랑스 5대 샤또 와인이 최근 완판됐다.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된 그랑크뤼 특 1급 와인은 와인의 명품으로 불리며 가격도 100만원대부터 600만원대까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집합금지 시행으로 가족 단위 소규모 홈파티 수요가 늘고 있다”며 “연말 연초를 겨냥한 주류와 케이크, 가정간편식(HMR)이 예년보다 훨씬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CU, 편의점 점포수 1위 재탈환

11월 기준 1만4898개 배달 서비스 창업주 관심 동네 슈퍼, 편의점 전환



편의점 CU(씨유)가 GS25를 누르고 점포수 1위를 재탈환했다. 지난해 11월 GS25가 17년 만에 점포수 1위 자리를 CU로부터 뺏은 지 1년만에 다시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편의점 점포 수는 3만 9904개다. 산업부 통계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기준 CU가 1만4898개를 기록하고, 세븐일레븐은 1만486개를 기록한 만큼 GS25의 점포수는 환산하면 1만4520개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점포 순증 수는 CU 1078개, GS25 621개, 세븐일레븐 481개다. 11월 기준 이마트24와 미니ストップ의 점포 수는 5301개, 2604개로 각각 863개, 22개 늘었다.

앞서 GS25는 지난해 11월 1만 3899개의 점포 수를 기록해 CU(1만 3820개)를 누르고 17년 만에 점포수 1위에 올랐다. 다만 곧바로 GS25는 작년 12월부터 점포 수를 비공개로 전환해 궁금증을 낳은 바 있다.

GS리테일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강화하면서 점포 수 경쟁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작년 1분기 153개, 2분기 110개를 늘리던 GS25가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03개로 평소의 2~3배로 가맹점을 늘리고 돌연 비공개를 밝힌 만큼 명목상 점포수 1위 타이틀 유지를 위한 행보로 풀이했다.

하지만 올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CU의 점포수 1위 탈환은 이미 예견됐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타 업종을 비롯해 동네 마트나 슈퍼 등이 안정성 높은 편의점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현상은 과포화인 수도권에 비해 지방 권역에서 두드러지면서 지방권역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CU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수도권 시장점유율은 GS25가 36.5%, CU 33.0%로 GS리테일이 다소 높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CU가 우세하다. 강원도 지역에서 CU 41.2%, GS25 29.6%로 11.6%p(포인트) 차이나는 것을 비롯해 충청도 35.3%와 32.8%로 CU가 우위다.

심야 점포 운영에 따른 부담도 CU가 GS25보다 가볍다. GS25의 심야 미운영 점포 비율은 대략 15% 내외지만, CU는 이보다 높은 20% 수준이다. 지방 권역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도서 지역도 많아 CU를 선택하는 점포가 많을 것이란 얘기다.

비대면 쇼핑 시대에 배달 서비스 역시 CU가 다소 앞선다는 평가다. 배달 서비스에 먼저 뛰어든 CU는 11월 말 기준 요기요에 5800개 매장, 위메프 오에는 4300점이 입점했다. 네이버에는 이달 중으로 5000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카카오톡 주문하기에도 나선다.

CU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서비스와 셀프 결제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한 것이 창업 경영주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마트 ‘간편하게 떡국 드세요’

롯데마트가 다가오는 새해 가볍게 떡국을 즐길 수 있도록 롯데마트 PB상품인 ‘요리하다 떡국탕·사골곰탕·만두’를 31일까지 전점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요리하다 진한 한우사골곰탕(500g)은 정사가 2980원에서 40% 할인된 1780원에 판매하며, 요리하다 우리쌀떡국떡(700g)은 정사가 3980원에서 행사가 3480원에 구매 가능하다. 또한 떡국과 찰떡곰탕인 ‘요리하다 만두4종’도 함께 판매한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설 선물 예약받아요” 비대면 명절 대형마트 분주

이마트 전 점포 ‘전화 주문 서비스’ 홈플러스 얼리버드 고객 할인 혜택

대형마트들이 일찌감치 내년 설 선물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특히 내년 설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동과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 배송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 판매 품목 수를 확대하고, 자체 온라인몰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와 SSG닷컴은 설을 50일 앞둔 24일부터 내년 1월 31일(D-12일)까지 총 39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1월 25일부터 2월 9일 사이에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배송된다.

간편하고 안전한 선물세트 구매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비대면 명절’에 미리 선물을 구매해서 보내는 트렌드를 반영해 사전

예약 상품과 프로모션을 대폭 강화했다.

이마트는 언택트 서비스를 강화한다. 작년 설 명절에 약 20개 점포에서 진행했던 ‘전화 주문 서비스’를 지난 추석에 이어 이마트 전 점포로 확대 진행한다. 내년 2월 8일까지 구매 수량에 한장 없이 집(회사)에서 선물세트를 상담, 결제 할 수 있다. 이마트 앱을 통한 선물세트 구매 간편 서비스로 선물 세트 구매 수량에 따른 할인금액과 견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찍 준비할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 혜택도 강화했다.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 행사카드(총 13종)로 구매 시 최대 4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기간에 따라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도 2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021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 신선과 가공, 생활용품 등 총 276품목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엘포인트(L.POINT) 회

원 및 행사 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은 정사가 대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이상진 마케팅부장은 “설 선물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 혜택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롯데마트에서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준비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는 17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전 채널에서 2021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기간 홈플러스는 작년 설(440여 종)보다 20%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53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고객이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30% 할인,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별 혜택은 차등을 두어 ‘얼리버드 고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

파바·배라 ‘라방’... 케이크 4만개 팔려

‘카카오쇼핑라이브’ 뜨거운 호응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베스킨라빈스가 ‘카카오쇼핑라이브’ 방송에 등장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SPC그룹은 22일 저녁 7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시청횟수 22만 4450회, 최고 동시 접속자 7686명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파리바게뜨와 베스킨라빈스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약 4만세트(금액 기준 약 11억원)가 모두 판매됐다.

방송은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해지’ 기상캐스터, 운동&먹방 크리에이터 ‘지기TV’와 그의 사랑스러운 딸 ‘태아블리’가 출연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준비하는 다양한 팁을 소개했다.

파리바게뜨는 △팽수 산타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그니처 생크림 케이크 △산타가 보낸 산타케이크 △산



타는 딸기 루돌프는 초코 등을 선보였다.

베스킨라빈스는 연말 캠페인 ‘메리 베라스마스’의 메인 협업 캐릭터인 ‘월리’를 활용한 △홀리데이 워드 히든 큐브 △홀리데이 워드 해피 하우스 △홀리데이 워드 스윗 캐치 △월리와 함께 찰칵 등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제품을 소개했다.

라이브 방송을 기념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20% 혜택과 히든 경품 제공 등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번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 굿즈도 선보였다. 베스킨라빈스의 ‘월리 자동충전식 캠핑 에어매트’, ‘월리 캠핑 폴딩카트’ 등이 소개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코로나 '30분 신속진단' 29종 허가 심사만 4개월

유전자 증폭(PCR) 방식에 집중됐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법을 표준으로 삼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드는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자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 항원검사법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진단은 분자 진단인 PCR 방식, 면역 진단인 항원 진단과 항체 진단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PCR 방식은 코로나19 유전자를 증폭해 검사하는 만큼 검체에 바이러스가 소량만 있어도 감염 초기부터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8% 이상, 100%로 높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 이에 비해 신속항원·항체 진단키트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10~30분 안에 진단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국내 승인 제품 2종...그나마 한 개는 사용목적 제한 전문가들 "무증상 감염자 많아 도입 시간과의 싸움" 가정용 키트 필요성 제기...美 FDA, 지난달 첫 승인

◇SD바이오센서·수젠텍, 신속 진단키트 정식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신속 진단키트는 SD바이오센서와 수젠텍 2개뿐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초 SD바이오센서의 신속 항원·항체 진단키트를 정식허가한 데 이어 21일 수젠텍의 신속항체 진단키트로 정식허가했다.

신속진단키트, 현장선 1종만 사용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SD바이오센서의 신속항원 진단키트만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신속항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정식허가 받을 때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활용하기 어렵다. SD바이오센서 측은 "신속항체 진단키트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을 때 항체 생성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목적으로 승인받아 일선 병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통보해와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수젠텍 역시 국내판매유를 위해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정식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신속항원 진단키트는 12개, 신속항체 진단키트는 17개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허가심사 기간은 4개월가량 걸린다.

◇전문가들 "방역 대응 실패" = 전문가들 사이에선 PCR 방식만 고집했던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약개발 전문가인 배진건 박사(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는 "신속 항원·항체 진단키트는 무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진작 썼어야 했다. PCR 검사법보다 정확도가 10% 정도 떨어진다고 해서 도입이 늦었는데 확진자를 빨리 가려내지 못해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신속 항원·항체진단키트를 확대 도입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별 진료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스스로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정용 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률이 높은 상황에

서 왜 PCR 검사만 고집하나. 교도소나 요양원 등 전수조사가 필요한 곳이나 응급수술 환자 등 빠르게 신속 검사가 필요한 집단에 한해 가정용 진단키트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환자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게 쉽지 않다며 반대하는데 미국에서 최근 승인한 가정용 진단키트는 검체 채취 면봉이 짧다. 편리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한 신속키트가 PCR 방식보다 정확도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 "바이러스 감염 기간이 길어지면 바이러스 양이 많아질수록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정용 진단키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아직 식약처에서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수 있게 허가받은 제품은 없지만 필요성은 인정된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코에 면봉 넣어 자가 검사도 가능

◇타액으로 코로나 신속 진단 개발 박차 = 미국 식품의약품(FDA)은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진단키트를 지난달 처음 승인했다. 지난달 미국 제약회사 루시라헬스가 제조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승인한 데 이어 15일(현지시간) 호주의 제약회사 엘름이 개발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승인했다.

특히 루시라의 진단키트는 일반인이 살 때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엘름의 진단키트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15분 걸린다.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요가 높아져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진단키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타액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피씨엘은 가정용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진단 시작 기기 제조업체인 SD바이오센서 연구원이 코로나19 신속 항원진단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SD바이오센서 키트는 현재 국내 승인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2종 중 의료현장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연합뉴스

해 넘기는 팬데믹...K진단키트 수출 3조 넘는다

美·유럽·중동 등 수출국 다변화 전통제약사·바이오기업 협업도 씨젠, 매출 10배 늘어 '1조'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집단 감염) 사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백신 개발은 성공했지만, 아직 접종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감염자 선별·분리는 더욱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2조5000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요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000만 명을 향하고 있다. 이미 확진자 수 1800만 명을 넘긴 미국은 매일 20만 명이 가까운 확진자를 추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확진자도 하루 수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K진단키트 수출 고공행진 = 전 세계가 팬데믹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까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22억7000만 달러(2조5000억 원)를 기록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진단키트 수출은 5~7월 감소세를 보이며 4월 수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듯했다. 7~8월 남미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9월 3억9000만 달러(4300억 원)를 기록한 진단키트 수출 실적은 10월 4억1200

진단키트 월별 수출 현황 (단위: 억 원)



만 달러(4600억 원), 11월 5억4600만 달러(6000억 원)로 수직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진단키트 수출은 3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키트 대박에 '1조 클럽' 단숨에 가입 = K-진단키트의 확산은 개별 기업의 성장장으로 이어졌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로 올해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220억 원으로, 1년 새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씨젠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씨젠에 따르면 11월 한 달에만 250여 개의 진단장비가 수출 설치됐으며, 이는 작년 한 해 설치 규모에 맞먹는다.

장비의 확산은 곧 시야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회사는 내년 1분기 경기 하남시에 5개의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해 총 생산 능력을 5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타액검사에 적합하도록 민감도를 증가시킨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제품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진단키트 = 셀트리온은 체외진단 전문기업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2400억 원 규모의 신속항원진

단키트를 자회사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항체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특이 표면 항원을 인식하는 제품으로,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유럽시장에 수출한 지 약 2달 만에 60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계약을 맺었다. 진단키트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EDGC는 솔젠트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에 분자진단키트 1200만 개를 공급한다. 휴메디스는 항원진단키트의 러시아 누적 주문이 100만 개를 넘어섰다.

진단키트의 사업의 성장성을 확인한 전통 제약사들도 바이오기업과 손잡고 사업 확대를 시작했다.

대웅제약은 시선바이오가 개발한 진단키트 제품 6종에 대한 글로벌 판매에 나섰다. 해외지사법인을 활용해 국제허가신청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제 개발과 진단키트 수출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대웅제약은 코로나19를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한국콜마는 씨티씨바이오로부터 항체진단키트를 공급받아 러시아에 유통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의 지속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갖춘 항원진단키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높아진 것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치료제나 백신이 확실하게 자리잡기 전까지는 진단키트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미약품 기술수출 항암신약, 내년 FDA 허가 신청 (포지오티닙)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 신청을 내년에 진행한다.

스펙트럼은 22일(현지시간) FDA가 과거 치료 경험이 있는 HER2 Exon20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대상 코호트2 임상 결과에 기반한 사전 미팅에

서 신약시판허가(NDA) 제출에 동의, 내년 시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코호트2는 90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1일 1회(QD) 용법으로 포지오티닙 16mg을 경구 투여한 임상이다. ORR(객관적반응율)은 27.8%이고 전체 ORR 범

위는 18.9~38.2%(95% 신뢰구간)로 최소 유효값(17%)에 도달했다. mDOR(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5.1개월, 추적 관찰기간은 8.3개월, mPFS(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5.5개월이었다.

조터전 스펙트럼 사장은 "NDA 신청을 위한 논의에서 FDA와 합의에 이른 것은 포지오티닙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중독 의학적 니즈가 높은 영역에서 포지오티닙의 안전성과 효과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펙트럼은 이날 포지오티닙의 또 다른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코호트3은 치료경험이 없는 EGFR Exon20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포지오티닙의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이다. 79명의 환자 대상으로 1일 1회 16mg 용량을 투여해 22명(27.8%)에게서 부분반응(PR)을 확인했다.

ITT(무작위 배정 환자를 포함한 치료의향 모집단) 분석에 따른 ORR은 27.8%, 전체 ORR 범위는 18.4~39.1%

(95%신뢰구간)였지만, 일부 환자에서 복용중단 발생으로 사전 정의된 통계학적 가설을 기반으로 예상한 ORR의 최소 유효값(20%)에는 도달하지 못해 코호트3 일차평가변수는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DCR(질병조절율)은 86.1%, mDOR은 6.5개월, PFS(무진행 생존기간)는 유의미하게 개선된 7.2개월이었으며, 안전성 프로파일은 다른 2세대 EGFR TKI에서 관찰된 부작용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를 멈춰주세요



의무보유 물량 해제 앞두고... 상장사-투자자 '눈치싸움'

SK바이오팜·동양물산기업 등 7곳 내년 1월 '의무보유' 해제 '차익 실현 물량 쏟아질 가능성' 기업에 부정적 이슈, 투자 유의'

2021년 신축년 첫 달 7개 기업의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IPO 대어급으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상장사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까지 대거 포함돼 투자자들 간에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통상 의무보유 확약 해제 후에는 차익 실현 가능성이 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촌에프앤비, SK바이오팜 등 공모주 청약 광풍을 이끈 기업들의 의무보유기간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교촌에프앤비 최대주주 물량 63만9040주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내달 2일에는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 보유 물량인 5873만4940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이 해제된다.

의무보유 조치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기관 등이 보유한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대주주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면 주가가 급락해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경영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의무보유 현황

회사명	해제일자	해제수량	전체 발행 주식 수	전체 주식 수 대비 락업해제 비율
SK렌터카	2021년 1월 20일	1361만8840주	4728만5840주	28.8%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2021년 1월 16일	30만 주	2400만 주	1.3%
금호에이치티	2021년 1월 14일	193만7985주	1억1621만3148주	1.7%
셀마테라퓨틱스	2021년 1월 13일	148만4423주	1140만9704주	13.0%
필룩스	2021년 1월 10일	154만9296주	9004만3128주	1.7%
동양물산기업	2021년 1월 9일	1061만5710주	1억2600만4610주	8.4%
SK바이오팜	2021년 1월 2일	5873만4940주	7831만3250주	75.0%
교촌에프앤비	2020년 12월 31일	63만9040주	2498만2540주	2.6%

안정화 의도 등이 포함돼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작다. 반면 기관 보유물량, 사모 증자 물량은 의무보유 기간이 해제되면 곧바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 SK바이오팜 등에서 기관보유 물량이 락업 해제 후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가볍히 넘기며 종목별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차익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 사모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 대비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고, 보유 비중이 높아 주가에 오버행(대량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달 9일에는 동양물산기업(1061만5710주), 10일 필룩스(154만9296주), 13일 셀마테라퓨틱스(148만4423) 등 사모 증자 물량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된다. 동양물산은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보유 물량이다.

이중 필룩스, 셀마테라퓨틱스 등은 코로

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으로 여겨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로, 해당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필룩스는 최대주주 삼본전자 보유 물량이다. 셀마테라퓨틱스는 2대 주주인 덴트온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인 레이, 개인 채무자 등이 가진 주식이다.

이밖에 14일에는 금호에이치티(193만7985주), 16일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 주), 20일 SK렌터카(1361만8840주)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해제된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물량의 경우, 공모가 대비 저렴하게 주식을 받기에 의무보유기간이 해제되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라면, 미리 일정을 챙기고, 만약 락업 해제 후 최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다면, 기업에 매우 부정적 이슈로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아 기자 jih@

내년 'IPO 대어' 몰려온다

2021년 새해에는 역대급으로 뜨거운 IPO(기업공개)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 계열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수 조원의 기업가치를 보유한 '대어'들이 줄줄이 IPO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공모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공모규모 약 8조 원)의 기록을 훌쩍 상회하며 증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주요 IPO 상장 기업(단위: 원)

기업	업종	예상기업가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40조~50조
크래프톤	게임	20조~30조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6조~40조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7조~10조
카카오페이지	앱 서비스	2조~4조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3조
SKIET	배터리	5조
윈스토어	앱 서비스	1조
한화종합화학	화학	3조~4조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장 목표중인 업체 중 기업가치가 조 단위에 달하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40조~50조 원) △크래프톤(20조~30조 원) △카카오뱅크(6조~40조 원) △카카오페이(7조~10조 원) △SK바이오사이언스(3조 원)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들의 총 기업 가치만 약 78조 원, 공모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독립한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상장 예정기업 중 '최대어'로 꼽힌다.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에서는 예상 기업 가치를 최대 50조 원으로 평가 받는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도 기대감이 높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SK텔레콤의 앱마켓 자회사인 윈스토어도 내년 상반기 상장 심사를 목표로 IPO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가치는 1조 원 가량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무기로 두었던 한화종합화학도 내년 코스피 시장 입성을 위해 국내 증권사들에게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냈다. 기업가치는 3조~4조 원대로 거론된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내년 예상되는 대어급 업체들의 공모 규모를 감안했을 때 IPO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배정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유입되는 개인 청약 대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개인 청약자 물

전기차 부품 진출 소식에 LG전자, 30%↑ '상한가'

LG전자가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2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61%)까지 치솟은 11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전자가 10만 원 선 위로 올라선 것은 2018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9조5559억 원으로 하루 만에 약 4조5000억 원 불어났다. 우선주 LG전자우(29.96%)도 함께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 가칭 '엘지 마그나 이퍼워트레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물적분할로 회사를 설립하고 마그나가 신설 회사 지분 49%를 인수한다. LG전자에서 분할되는 사업은 전기차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 구동시스템 등이다. 회사 측은 내년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께 합작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수주 잔치... 조선株 랠리 이어갈까

연말 수주를 잇달아 따내고 있는 조선업계가 연간 목표 매출에 근접했지만, 만성적 불확실성에 따른 고평가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선주들이 주가 도약과 고평가 하방압력 사이 갈림길에 놓였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전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에

4035억 원(매출 대비 5.5%) 규모 액화천연가스(LNG)선 2척을 수주했다. 같은 날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파나마 소재 선사에게 6072억 원 규모(17.41%) LNG선 3척을 수주했다.

앞서 21일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컨테이너선 4척, LNG선 3척을 수주했는데, 컨테이너선 총 계약금액은 4512억 원, LNG선은 6043억 원이었다. 삼성중공업도 4082억 원 규모 LNG선 계약을 따내며 수주를 이어

갔다. 조선업은 연말 쏟아지는 발주 물량에 반색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조선 4사(한국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삼성중공업·삼호중공업)의 11월 이후 발주 선박만 68척이며 총 1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두 달 동안 4개사의 올해 연간 상선 목표 267억 3000만 달러(29조6542억 원)의 30.7%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주한 셈이다.

조선 4사의 '비중 확대'를 제시한 이 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수주 물량이 남아있고, 내년 상반기도 수주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한 달 24% 상승했고, 유가 회복과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경제재개 기대, 원화 강세 등 발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LG에너지솔루션·크래프톤·카뱅 등 등판 예정 기업 가치 78兆... 공모 규모 15兆 '역대 최대' '유동성 장세 이어질 것'... 주관사 경쟁도 치열

에는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30조 원에 달한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지도 내년 줄줄이 IPO를 앞두고 있다. 3곳 모두 상장 주관사 선정이 마무리됐으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카카오페이지는 내년 하반기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SK계열사들도 내년 증시 입성을 목표로 IPO 작업이 한창이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한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1분기 상장이 목표이며, 기업 가치는 3조 원대 이상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하반기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며, 기업 가치는 5조 원 안팎으로 평가받고 있다.

량 중 50%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돼 소액 청약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자금력이 낮은 개인투자자들도 공모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위의 IPO들의 대표 주관사 따내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국내 IPO 시장 대표 주관은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대형 상장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IPO 빅딜 대표 주관 경쟁에서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KB증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표 주관사 선정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주관사가 확정되지 않은 LG에너지솔루션, 한화종합화학 등의 빅딜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IPO 실적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국민연금, 운용직 채용 시 '평판조회' 신설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1회만 적발해도 해임 이상 중징계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신설한다. 또 성비위, 금품수수 등 6대 비위행위로 1회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공단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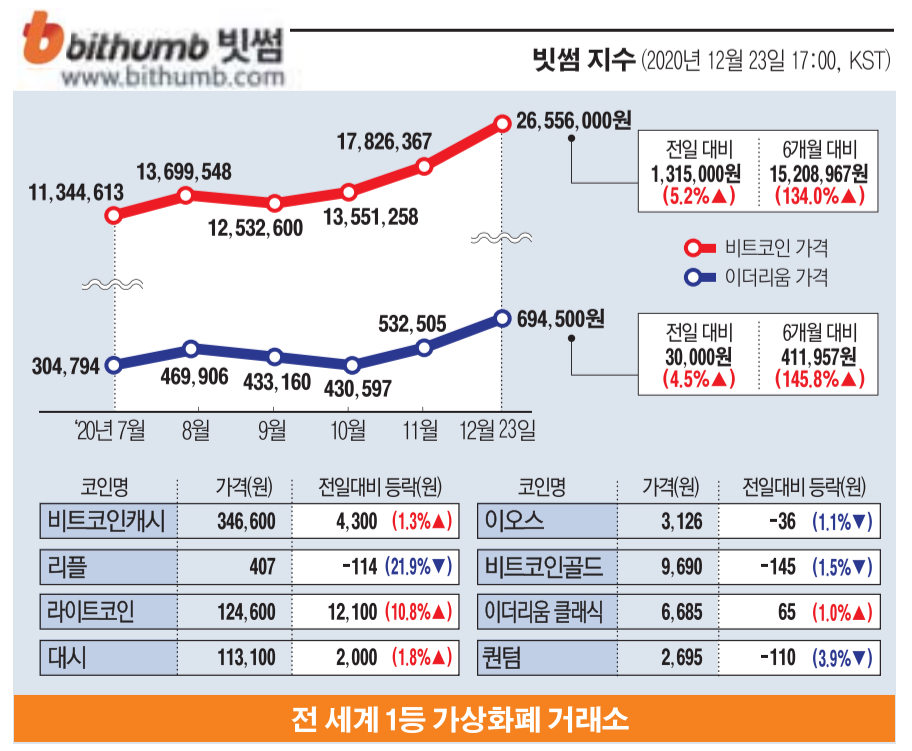
앞서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9월 대마초 흡입으로 적발됐고, 같은 달 공단은 쇄신책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공단은 운용직의 직업윤리 함양 차

원에서 채용 시 전문성 검증에 더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회를 신설한다. 또 인성검사를 강화한다.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지사장 이상 전 간부는 비위행위 시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성비위, 금품·향음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선 정도가 중할 시 1회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으로 제재하고, 확정된 징계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성과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해외투자 비중을 현재의 2배 이상인 55%로 늘리고, 효율적 투자를 위해 해외사무소에 인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쇄신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소통을 통해 직원참여도 활성화하겠다"며 "창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공간 혁신을 병행하는 등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쇄신을 추진하고, 쇄신 성과는 앞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서울 쓰레기 하루 4.6만톤... 코로나가 낳은 '괴물'

집콕의 역습 -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집콕'(집에서 콕 박혀있다)은 일상이 됐다. 집 안에서 일과 생활, 식사를 하는 시간이 부쩍 늘면서 자연히 쓰레기 양도 증가했다.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되면 한 시적으로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다.

◇서울 하루 배출하는 쓰레기 4.6만톤= 서울 지역 쓰레기 배출량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있는 '서울시 쓰레기 수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3만4000톤 수준이다. 2014년에는 3만7000톤, 2015년에는 4만톤을 넘어섰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하루 4만6000여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집콕'은 고스란히 쓰레기 양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서울디지털재단 자체 조사를 보면 올해 1월 평균 배달음식 주문빈도는 3.0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에는 주문빈도가 4.4로 약 1.4배 증가했다. 배달음식은 곧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 배출을 늘렸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간편식을 주문하는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위메프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가정간편식 키워드로 검색되는 전체 상품 매출은 490.8% 늘었다. 코로나19와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951톤의 비닐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폐기물도 하루 평균 848톤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1.1%, 15.6% 증가했다. 여기에 민간 선별장에서 처리한 폐기물을 합치면 양은 더 늘어난다. 서울도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 뒤 재활용 쓰레기가 15%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쓰레기, 처리할 곳이 없다=쓰레기는 많아지고 있지만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서울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하루 매립량은

음식 배달·가정간편식 등 급증 비닐·플라스틱 용기 대거 배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자원회수시설 건립 나섰지만 2026년에야 가동 '대란' 우려

2018년 868톤, 2019년 950톤 수준이다. 제때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5일에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 단위의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일 이전에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 8월 사용 종료 예정이다. 하지만 자원회수 시설이 이전에 건립될 가능성은 낮다.

선정위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종 입지선정은 2022년께 결정될 전망이다. 자원회수시설 공사기간까지 더하면 시설은 2026년 가동 전망이다. 실제 마포자원회수시설(2005년 완공)은 공사기간만 약 3년 7개월이 걸렸다. 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이에 1000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홍인석 기자 mystic@



대안은

“개인이 줄이는 건 한계... 기업, 포장부터 바꿔야”

빈 용기에 내용물 채워가는 '리필 스테이션' 주목 테이프 필요없는 '날개박스'... 아리수 라벨 없애

쓰레기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유통업계가 포장재 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품과 포장에 비닐과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다. 유통업계뿐 아니라 서울시도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리필 스테이션'이다.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내용물만 판매하는 매장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빈 용기를 가져가면 세제 내용물만 채워서 판매하는 '세제 리필 매장'을 열었다. 특정 브랜드 세제 용기를 지참하면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정가보다 35~39%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전용 용기는 리필 매장에서 500원에 판매한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화장품 업계 최초로 샴푸와 바디워시 내용물을 나눠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을 선보였다. 리필용 용기도 코코넛 껍질로 제작했다. 이 용기에 샴푸

와 바디워시 15개 제품 중 희망하는 제품의 내용물만 담아갈 수 있다. 용기도 친환경적인 데다 플라스틱 사용이 줄면서 쓰레기 배출량 역시 감소한다. 쓰레기 위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도 포장할 수 있는 상자도 생겼다. 그동안 테이프는 상자 재활용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잘 찢지도 않아 플라스틱 쓰레기와 차이도 크게 없다. 친환경 상자를 판매하는 기업 '날개박스'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포장 완충재도 필요 없는 상자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접착 부분이 날개부로 구성되는 접이식 상자다. 뷰티 브랜드 '룩시팡(L' OCCITANE) 등이 날개박스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달한다.

날개박스 택배 수령 경험이 있는 직장인 홍모(30) 씨는 "테이프가 안 나와서 좋다"고 반색했다. 이어 "상자 재활용을 위해 테이프를 뜯고 버리는 일도 번거롭다"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처리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5월 생수 '아리수' 페트병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0% 자연 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한 '생분해성 병물 아리수'도 도입한다. 생분해성 병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도 매립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병물 아리수 생산량을 50만 병으로 더 줄이고, 이 가운데 10만 병을 생분해성 병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소비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포장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익명을 요청한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비자 개인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업들이 나서서 비닐 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거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친환경 포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라며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인 만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겨울 비수기는 '옛말'

올 겨울 전국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2월은 분양시장에서 비성수기로 통하는데도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9%로 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도 0.3% 오르는 등 가파른 상



예비 청약자들이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아 모형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대림산업

올 마지막 '분양대전'

승세를 타고 있다.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자 건설사들도 연말 분양 대전에 뛰어들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총 2만7308가구다. 올해 4분기(10~12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 가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4000가구(20%) 늘었다. 특히 대형 건설사 브랜드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이 뜨겁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률 청약 결과를 보면 이달 14일 기준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5.56대 1로, 나머지 건설사의 경쟁률 13.35대 1보다 약 2.7배 높았다.

반포3차 등 통합 재건축...내년 상반기 분양

1721가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기대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삼성물산은 내년 상반기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사공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아파트와 신반포23차, 강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해 짓는 단지다. 기존의 2433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규모의 299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3·7·9호선(고속터미널역·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반포대로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계성초와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 우수 학교가 형성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



점과 서울성모 병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게스트 하우스, 피트니스, 사우나와 함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이프와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래미안 블레스티지에 적용한 조식서비스 공간도 설치될 계획이다.

단위세대 천장고는 일반아파트(2.3m)보다 20cm 높은 2.5m로 설계해 공간감을 확대한다. 외부에는 7가지 '리조트 레인보우' 콘셉트에 맞춰 구역별 특화조경을 선보인다. 단지는 현재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이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짜리 13개동에 총 1721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59㎡A 392가구 △59㎡B 54가구 △59㎡C 380가구 △75㎡A 110가구 △75㎡B 110가구 △84㎡A 489가구 △84㎡B 186가구 등이다.

단지는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령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IC를 통한 영동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돼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도 기대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가구에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돼 넉넉한 수납공간도 자랑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어린이집, H 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북카페, 상상도서관, 골든라운지(경로당), 게스트룸 등이 들어선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다양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라며 "1721가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 첫 브랜드 아파트...84㎡이하 중소형

서해 조망 극대화한 리조트형 아파트 강점

대림산업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대림산업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아파트를 내달 분양한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 동에 총 472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98가구 △74㎡ A 41가구 △74㎡B 67가구 △74㎡C 71가구 △84㎡ A 169가구 △84㎡B 26가구 등이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면적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가평군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 직선거리 1.5km 내에 경춘선·ITX 가평역이 있다. ITX를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

까지 40분, 용산역까지 60분 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가평초와 가평중이 반경 1km 내에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5km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석봉 어린이집과 가평 어린이집 등 다수의 어린이집이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내달 개관할 예정이다.

GS건설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GS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6공구에 짓는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을 분양한다.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지하 1층~지상 42층, 총 9개 동 15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9개 동 가운데 아파트가 7개 동이며 테라스하우스가 2개 동이다. 면적은 전용 84~205㎡로 구성된다.

송도국제신도시는 총 11개 공구, 16개 지구로 현재 약 7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이 들어설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앞으로 2만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와 학교뿐만 아니라 국제업무, 관광·레저, MICE(마이스) 복합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의 가장 큰 장점은 서해 조



망극대화한 설계다. 커튼월 특이 적용돼 외관 차별성을 더했으며, 일부 저층을 제외한 대다수 타입에서 바다가 바로

이도록 조망 특화 배치를 적용했다. 송도 내 조성되는 단지 중 처음으로 적용되는 스카이라이프 커뮤니티에는 선셋라운지, 북살롱, 풀빌라형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은 차별화된 조망권에 초점을 맞춰 설계했다"며 "최고의 조망에 어울리는 고품격 단지 설계로 송도국제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가경 아이파크 5단지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부영주택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청주 다섯 번째 아이파크

GTX 개통편 서울역까지 20분

10년 임대...잔여가구 바로 입주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들어서는 '가경 아이파크 5단지'를 이달 분양한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6㎡형 925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

84㎡A타입 177가구 △84㎡A1타입 199가구 △84㎡B타입 206가구 △101㎡형 237가구 △116㎡형 106가구 등이다. 가경 아이파크 5단지는 청주에서 다섯 번째로 들어서는 아이파크 아파트다. 이미 공급된 1~4단지과 함께 총 3678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청약 일정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해당지역, 30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7일이다. 정당 계약은 1월 19~22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일대에서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지하 3층~지상 23층 9개 동에 총 767가구(전용면적 84㎡) 규모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95가구 △84㎡B 281가구 △84㎡C 107가구

△84㎡D 18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도보권에 있다. 지하철 세 정거장 거리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인천시정역)과 수인분당선(원인재역)을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진다. 개통시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홍보관과 견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에선 잔여

가구 중 원하는 동·호를 골라 계약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다.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은 총 3518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높이로 39개 동이 지어졌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59~84㎡다.

아파트는 부산신항과 차로 10분 거리(약 3km) 떨어져 있어 항구에서 일하는 항만·물류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좋다. 신항동로를 거치면 서부산과도 이어져 있다.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 등은 아파트에서 10km 떨어진 부산 가덕도에 김해국제공항을 대신할 신공항을 지으려 한다. 을숙도 등 해양·녹지 공간과도 가깝다.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견본주택은 용원동에 마련됐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생각

이 — 어 — 지 — 다

행동으로

생각만 한다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빛나는 생각도, 암선 생각도

생각에서 멈춘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디지털이라는 변화, 언택트라는 큰 변화 앞에서

고객을 위해 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이 했던 수많은 생각들.

지라서 곳이 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고객의 기쁨이 되도록.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고객 가까이.

당신의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신한은행**

말하시기 전에 알자
마이케어 서비스

챙겨드리자
MY 신용관리

원하실 때 만나자
디지털트 브랜치

오시지 않아도 되게하자
STAB (찾아가는 서비스)

더쉽게 해드리자
SOL 청약컨설팅

아껴드리자
월납관리 서비스

편하게 해드리자
전자문서지갑

“작은 사고 가능성부터 제거, 무재해 실현 첫걸음”

알 카타니 에스오일 CEO의 ‘안전제일주의’

4분기 안전회의에서 “기본부터 점검하자” 거듭 안전 강조 지난달 창사 이래 세 번째 ‘무재해 500만 안전 人時’ 달성

“작은 사고의 가능성부터 집중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곧 무재해 실현의 성공 요소입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스오일(S-OIL) 최고경영자(CEO)가 ‘안전’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정유·화학 공장의 특성상 안전 문제에 있어선 기본부터 점검하자고 주문했다.

23일 에스오일에 따르면 알 카타니 CEO는 최근 열린 안전 회의(Safety Town Hall Meeting)에 참석해 “효과적인 소통과 사례 분석을 통해 근무하기에 가장 안전한 사업장, 사회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신신당부했다.

에스오일은 분기마다 CEO와 경영위원회가 참여하는 안전 회의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안전수칙과 직장 밖에서의 안전 증진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사 경영진은 업무 환경은 물론 직장 밖 안전은 곧 우리 인력과 생산성, 의료비용 등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날씨나 월별 주제에 기초한 생활안전 캠페인 등과 같이 일상과 밀착된 시행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국내외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원인 분석과 권고안 등을 되짚어 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알 카타니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정유공장 근무 당시 현장 경험을 상기하며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전략과 실행방안 수립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안전 회의를 마친 뒤 알 카타니 CEO는 “올해 마지막 안전 회의를 통해 안전에 관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 변화한 인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스오일은 최고 경영층이 참여하는 정



후세인 알 카타니(앞줄 왼쪽 세 번째) 에스오일 CEO가 지난해 6월 13일 최고경영자에 취임 직후 울산 공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점검(Safety walk-through)을 실시하고 있다.

기적인 안전 회의 외에도 전사 안전관리위원회와 최고안전책임자를 신설하는 등 사내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에스오일은 지난달 창사 이래 세 번째 ‘무재해 500만 안전 人時(人時)’를 달성하기도 했다. 인사는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일했을 때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무재해 500만 인시는 에스오일 울산공

장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92일간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당시에도 알 카타니 CEO는 “무재해 500만 인시를 돌파한 이후로도 우리의 안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며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발견하면 누구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한 방식을 유도하고 함께 실천하자. 안전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교육부 정종철·통계청장 류근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왼쪽 사진부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정종철 신임 교육부 차관은 교육정책 기획부터 일선 교육현장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교육행정 전문가”라고 말했다.

외교부 제2차관에는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제2차관은 외교관 출신으로 경제·다자외교 및 재외동포 보호라는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행정 전문가로 문제부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기획력과 소통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대변인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으로서 현장 이해도, 정책기획 및 소통능력을 겸비한 농정 전문가”라고 밝혔다.

통계청장에 임명된 류근관 교수에 대해서는 “30여 년 계량경제학과 경제통계학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이자 통계전문가”라면서 “뛰어난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내정됐다. 정일환 기자 whan@

부음

▲김석범 씨 별세, 김승모(부화화 방산 부문 대표) 씨 부친상 = 23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64-742-5000

▲김환우(전 경남매일신문 편집국장) 씨 별세, 김기형(메리츠증권 사장)·병형(희림건축사무)·남형(홀링스톤프로덕션 대표) 씨 부친상 = 22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25일 오전 8시, 02-2258-5940

▲황화익 씨 별세, 서보익(유진투자증권 자산운용실장) 씨 장모상 = 2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 02-3410-3151

▲이종희 씨 별세, 조상수(프로야구 kt wiz 매니저) 씨 장인상 = 23일, 김천 의료원 장례식장 효성원 102호,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54-429-8280

▲김시달 씨 별세, 김용기(기원테크 부사장)·문기(미건에스티 대표)·영옥(대전 대화중 수석교사) 씨 부친상, 조은옥(라보에듀학원장)·정경숙 씨 시부상 = 23일, 대전한국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42-638-4440

동원그룹 임원인사... 신영수 부회장 승진 동원팜스로

온라인사업부문 ‘홈푸드’로 통합 강용수 전무가 맡아

동원그룹이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온라인 사업을 효율화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총 23명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 내년 1월 1일이다

동원홈푸드와 동원와인플러스대표이사를 맡았던 신영수(왼쪽 사진)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사료전문회사인 동원팜스로 이동 배치됐다. 신 부회장은 동원F&B와 동원홈푸드 등에서 약 35년간 식품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 2012년부터 동원홈푸드 대표이사를 지내며 동원홈푸드를 연 매출 1조 원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동원그룹은 신 부회장을 정준오 대표이사 부사장과 공동대표로 선임하며 향후 사료 사업의 확대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원와인플러스 대표이사는 이재홍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승진해 맡게 됐다.

동원그룹은 각 계열사와 사업부로 분산 운영되던 온라인 조직을 통합 운영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식품 전문 쇼핑몰 동원



몰(동원F&B 온라인사업부) △온라인 장보기 마켓인 데반찬&(동원홈푸드 HMR 사업부) △국내 최대 축산 온라인몰인 금천미트(동원홈푸드 금천사업부) 등을 동원홈푸드 온라인사업부문으로 통합한다. 통합 조직의 수장은 동원F&B의 강용수(오른쪽)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승진해 맡는다.

또한 식자재, 조미, FS, 외식, 온라인 사업 등을 운영하는 동원홈푸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재·조미 부문, FS·외식 부문, 온라인사업부문 등 3개 사업 부문별로 각자 대표체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식재·조미부문 대표이사에 김성용 사장, FS·외식부문 대표이사에 정문목 부사장, 온라인사업부문 대표이사에 강용수 전무이사가 선임됐다. 김해지 기자 heyji@

포스코, 6·25 참전 16개국 용사 3700명에 포스아트 감사패

포스코는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약 1년여에 걸쳐 16개국 3700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포스코는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참전 감사패 제작을 기획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 모임, 국가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해외법인 및 주재공관 등을 통해 감사패와 함께 마스크, 손 세정제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포스코가 생산한 스테인리스



소재에 친환경 컬러 잉크젯 프린팅을 한 ‘포스아트(PosART)’를 적용했다. 또 ‘No One is Forgotten, You will always be remembered’라는 문구를 새겨 참전용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포스코의 메시지를 담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CJ, 이웃돕기 성금 20억 기탁

CJ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청년 문화예술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연결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CJ그룹은 2015년부터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왔다.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 140억 원이다. CJ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지 기자 heyji@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 △행정관리총괄과장 이용주

◆조달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형식 △기획재정담당관 직무대리 강희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공진 △조달수출지원팀장 김승걸 △전자조달기획과장 권혁재 △구매총괄과장 전태원 △소평물고기계약과장 김영현 △우수제품구매과장 이일형 △서비스계약과장 황광하 △건설용역과장 김종열 △토목환경과장 여인옥 △건축설비과장 박양호 △시설사업기획과장 이인호 △예산사업관리과장 유순재 △원자재비축과장 문경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조주형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박진호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이병권 △장비구매과장 홍기수 △충북지방조달청장 김연일 △제주지방조달청장 류용수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글로벌사

업본부장 이종진 △K-water 연구원장 박노혁 △인재개발원장 김동진 △수도지원본부장 이상철 △미래기술본부장 안정호 △녹색전환추진담당관 최도호 △시화사업본부장 박평록 △한강유역본부장 황영진 △금강유역본부장 김세환 △영·섬유역본부장 양진식 △낙동강유역본부장 류형주

◆한국마사회 ◇실·처장급 △경영전략처장 엄영석 △말산업진흥처장 추안호 △불법단속처장 안상식 △정보기술처장 김종호 △말보건원장 경순구 △말등록원장 최종필 △장수목장장 송대영 △도핑검사소장 이용덕 △제주목장장 장중덕

◆Sh수협은행 <승진> ◇팀장·지점장 △전략기획부 박진인 △개인금융부 김영미 △기업금융부 임승택 △리스크관리부 유형근 △평택비전동지점 박형호 △금천지점 허진 △원흥역지점 김희철 △화곡역지점 김윤호 △루원시타지점 함홍선 △광주첨단지점 송명환 <전보> ◇광역본부장 △동부광역본

부장 정철균 △남부광역본부장 송재영 △서부광역본부장 서제호 ◇부서장 △여신정책부장 김성완 △감사부장 최계정 △본점영업부장 송상호 △강남기업금융본부장 이원주 △중부기업금융본부장 이선호 △서울중앙금융센터장 김창운 △신설동역지점장 이미혜 △양재금융센터장 오미석 △역삼금융센터장 최영진 △공덕금융센터장 임규창 △경인지역금융본부장 신동수 ◇부서장 △카드사업부장 임기태 △기업금융부장 김용우 △여신관리부장 전철수 △IT지원부장 한상우

◆신한카드 ◇부서장 선임 △문동권 △강신태 ◇부서장 연임 △이찬홍 ◇상무 선임 △최진백 준법감시인

◆동원그룹 <승진> ◇전무이사 △동원엔터프라이즈 IT본부장 서정원 ◇상무이사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조정실장 김세훈 △동원산업 유통본부장 겸 경영지원실장 윤기운 △해양수산본부장 박상진 △동원에프엔비 마케팅지원실장 김도진 △경영지

원실장 윤성노 △동원홈푸드 금천사업부장 이영상 △동원로엑스 경영지원실장 이준석 <신규선임> ◇상무보 △동원산업 해양수산본부 수산사업부장 김병진 △유통본부 국내사업부장 조태현 △동원에프엔비 영업본부 지역1사업부장 신해용 △동원로엑스 DPCT 영업본부장 안영복 △동원시스템즈 영업본부 국내사업부장 박용진 △동원건설 산업 수주영업실 영업1팀장 박정원 △영업2팀장 김홍배 △영업3팀장 이종업 △공사지원실 성남지사산업센터 현장소장 김오형 △경영지원실장 김정삼

◆청호나이스 ◇승진 △전무 김종원 △전무 김효일 △이사 김형근 이기환

◆보령바이오팜 △개발본부장 전무 이소영 △영업본부장 전무 박명배 △마케팅본부장 상무보 장흥두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주간한국△상무 겸 편집국장 정만주 ◇스포츠타국 △상무 권정식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배동 모자 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제도와 시스템 탓으로만 비극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위기발굴 시스템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에 불과하다. 방배동 모자 사건을 인지한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에 대한 부탁을 잊지 않았다. 주위에 위기에 처한 이를 보면 24시간 어느 때라도 129를 눌러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알려 달라고.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갑작스럽게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일이 알려졌다. 이분의 죽음 이후 발달장애인 아들은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노숙자로 거리에서 생활해오다가 발견되었다.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자살이나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2014년), 증평 모녀(2018년), 북한이탈주민 모자(2019년)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새로운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첫 번째 차원은 생활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다. 방배동 모자는 월 24만 원가량의 주거급여만 신청해 받아왔다. 송파 세 모녀나 증평 모녀 사건과는 달리, 방배동 모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들의 장애가 확인되었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제도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딸과 함께 사는 전남편에게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제도적 해결책의 방향은 맞더라도, 이 문제의 원인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실 현재 제도 내에서도 이 모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했다.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쓰면, 구청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원은 반년 넘게 방치된 고독사로 드러난 위기발굴시스템의 한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가동해오고 있다. 다양한 생활정보를 분석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개 이상의 정보가 포착되면 위기가구로 발굴되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방배동 모자는 '이

미 발굴된' 위기가구로 인식되어 시스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제도와 시스템 탓으로만 비극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을 통해 동사무소에는 방배동 모자 가구에 대한 수시 회의 상담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를 극도로 회피한 어머니에게 좀 더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충분히 제공되는 상담은 결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했다. 우편함에 고지서가 수북하게 쌓이고 마스크가 택배로 배달되어 문 앞에 몇 달 동안 방치되었지만 누구도 문제를 감지하지 못했다. 장애인 아들은 몇 달 동안 길에서 노숙하며 엄마의 죽음을 알고 싶어 했지만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앞을 그저 종횡무림으로 바쁘게 지나쳤을 뿐이다. 복지관 직원도 동사무소 공무원도 아닌, 어느 직장에도 소속되지 않은 한 사회복지사가 그의 위험을 알아보고 말을 건네고, 한 달 동안 신뢰를 쌓고, 식당에 데려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이 모자의 소외되고 고단한 삶의 전말이 뒤늦게나마 세상에 드러났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안전망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발굴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동 시스템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에 불과하다. 현장 복지인력을 확충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시 가장방문의 동의를 구해 필요한 생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배동 모자 사건을 인지한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에 대한 부탁을 잊지 않았다. 주위에 위기에 처한 이를 보면 24시간 어느 때라도 129를 눌러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알려 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도 남도 믿지 못할 만큼 마음이 병들고 상처 입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이들이 대인관계를 기피한 채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자가격리를 실천하는 차분한 연말, 차가운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죽어간 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새해에는 따뜻한 제도와 실천을 통해 신뢰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경제학 박사·전 통계개발원장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2010년 이루어졌다. 이후 대형마트 숫자의 증가 속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규제 강화의 효과인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유통분야의 학자들이나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미 대형마트의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당시 법 개정의 주된 타겟은 SSM이었다. SSM은 산업분류상 대개 슈퍼마켓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의 욕구나 소비패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 소득수준, 생활방식, 기호나 취향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가파른 성장을 보였던 대형마트는 가구원 수의 감소, 1인 가구 수의 증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통환경인 일본의 경우 대형마트의 퇴조 현상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유통업은 다른 말로는 상업(商業)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만큼 유통업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경제적 동기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유통업에 규제를 도입해봤자 우리 사회가 완전한 통계경제가 아닌 이상 여러 우회방법을 통해 규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점포의 설립을 강력히 규제하면, 설립 신청이 급속히 늘어나 허가율은 낮아지더라도 점포 수 증가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 강력한 대형 소매점 설립 규제를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다.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상품공급점'이라는 형태의 유사 SSM이 늘어나고, 또 최근에 보듯이 식자재마트라는 업태가 등장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다.

대형소매점 규제 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세소매업은 대형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대형점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영세소매점은 소멸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국에는 10만 개 가까운 영세소매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생존하고 있다. 동네슈퍼나 편의점 등 영세소매점도 소비자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거리의 편리함이라는 대형마트에는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가운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소매점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그러한 나라에서도 거리 곳곳에 수많은 영세소매점들이 산재해 있으며, 대형마트와 공존하고 있다.

정부 규제를 통한 영세사업자의 보호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지속되기도 어렵다. 대기업이든 영세사업자이든 사업자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수요 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에 끊임없이 적응함으로써 스스로 생존·발전해나가는 플레이어의 하나이다.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시각에서 유통산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노먼 빈센트 필 명언 "노(No)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뜻하는 '온(On)'이 된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어라."

미국 목사이자 작가. 그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긍정적 사고의 힘'을 통해 긍정적 사고의 개념을 대중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98~1993.

☆ 고사성어 / 윤집결중(允執厥中) 요(堯) 임금(舜) 임금에게 왕위를 선양(禪讓)하며 "하늘의 정해진 뜻이 바로 그대에게 와 있으니 진실로 그 중용의 도를 지키도록 하라[天之曆數在爾躬允執其中]. 천하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시는 천자의 자리도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 출전 논어(論語) 요왈편(堯曰篇).

☆ 시사상식 / 제3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해 이렇게 분류한다. 생존 급부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상품으로 간호가 필요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중대한 관심사여서 보험상품 발달이 기대되는 분야.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저어(齷齪)하다 익숙지 아니하여 서름서름하다. 뜻이 맞지 아니하여 조금 서먹하다는 뜻이다.

☆ 유머 / 하느님과 예수님의 성씨 초등학교 아이가 목사에게 "하느님과 예수님이 부자지간이 맞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아이가 다시 "그런데 왜 하느님은 '하 씨'이고 예수님은 '예 씨'죠? 주위는 엔가요?"라고 질문했다. 목사가 난감해하자 옆의 여자 아이가 아는 체했다. "아 인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는 거여! 하느님과 예수님 두 사람의 성씨가 모두 다 '님 씨'가 맞어!"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관심이 조금증 수준이다.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노트북에 붙였다. 일부 언론은 연일 '백신 도입이 늦다', '백신 확보 물량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비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사망자가 급증하고, 서민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게임 체인저'로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느는 건 당연하다. 다만 여론의 조금증이 정부의 백신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과는 백신을 도입하지 못한 것보다 나쁠 수 있다. 먼저 협상에는 상대가 존재한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약사가 '갑'이다. 수요자인 각국 정부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조금증이고, 간절한 수요자일수록 계약조건은 더 불리해진다. 조금 과장한다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백신의 부작용으로 국민 수십 명, 수백 명이 숨져도 제약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선 정부에 '빠른 계약'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의 안전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임상시험 결과 등 안전성·유효성 근거도 불충분하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은 23일(한국시간) 누적 확진자(사망자)가 각각 1795만7112명(31만

7837명), 207만6749명(6만7668명)에 달한다. 백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여유가 없을 만큼 피해가 크다. 반면, 한국은 누적 확진자 5만2550명, 사망자는 739명이다. 백신의 실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예상보다 낮고 부작용이 크다면, 오히려 백신 접종이 더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최소 2~3개월은 다른 국가의 접종 상황과 안전성·유효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백신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백신에 대한 맹신은 오히려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느슨하게 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 현실에서 필요한 건 '백신이 도입되면 다 끝난다'는 안이함이 아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기자수첩



김지영 정치경제부/jye@

백신 조금증, 협상도 방역도 망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staff information: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물전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경제 대제국 이룬 宋 인종(仁宗)

시설

“궁중이 즐거우면 백성은 적막해진다”

송나라 시대의 어느 늦은 밤, 굉장히 떠들썩한 음악소리가 궁궐까지 들려오자 황제 인종(仁宗·1010~1063)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곁에 있던 궁인에게 물었다. “대체 어디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냐?”

그러자 궁인이 답했다. “가까이 있는 민간의 주루(酒樓)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폐하, 들어보십시오. 바깥 민간 세상은 이곳 궁중의 적막함과 달리 이토록 즐겁사옵습니다.”

이에 인종이 답했다. “너희는 아느냐? 궁중이 적막하기 때문에 바깥 백성들이 이토록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궁중이 바깥처럼 즐겁다면 백성들이 곧 적막할 수밖에 없다.”

‘판관 포청천’ 가능하게 한 ‘어진 인종’

송나라 인종은 재위 기간이 42년(1022~1063)으로 북송과 남송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 중국 역사상 인종 이전에 시호에 ‘어진 인(仁)’ 자가 붙여졌던 황제는 없었다. 그럴 정도로 인종은 그야말로 ‘인(仁)’으로써 치국(治國)을 행한 군주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황제라 할 수 있다.

인종은 평생 검소한 생활을 했다. 연회를 열 때마다 항상 같은 옷을 빨아서 다시 입고 나왔다. 청백리의 상징으로 유명한 감찰 어사 포청(包拯), 포청천(包青天)이 인종을 바로 면전에서 비판할 때면 심지어 황제의 얼굴에까지 침이 튀는 ‘무례하고 무도한’ 일도 많았다. 그렇지만 인종은 전혀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포청천이 이토록 두려움 없이 정책을 수행하고 직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종이라는 어질고 관후한 황제가 존재하여 그 뒤를 세심하게 돌봐줬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치세 기간에 왕안석(王安石)을 기용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그 외에도 범중엄(范仲淹)과 소동파(蘇軾)를 비롯하여 소순(蘇洵), 부필(富弼), 심괄(沈括), 구양수(歐陽脩), 사마광(司馬光) 등 많은 명신(名臣)과 명상(名相)들이 줄을 이었다. 다른 왕조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시기를 합한다고 할지라도 송나라 인종이라는 한 명의 황제시대에 배출된 명신과 명상의 숫자를 도무지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진입 이끌어

인종의 치세 기간에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자 상업과 해상무역을 비롯한 경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다고 평가되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인종성치(仁宗盛治)’라 칭했다. 활자 인쇄술과 나침반도 인종 시대에 발명되었다. 중국 최초의, 당연히 세계 최초의 지폐인 ‘관교자(官交子)’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송나라 인종 때 농업세와 상업세의 비율은 3대 7이었는데, 이는 중국의 어떤 역대 왕조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다. 이 시기 중국은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분명하게 진입하였다. 이 무렵 송나라는 가히 세계적 대제국(大帝國)이었다. “당시 송나라의 생산량이 무려 전 세계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추정도 그리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융성했지만, 인종은 세금을 크게 줄이고 군대도 정예화, 간소화해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인종 시기에 활약하였다.

잡은 인사·과단성 부족 비판도

이러한 인종에 대하여 모든 역사가들이 칭찬만 한 것은 아니었다. 훗날 명말청초(明末靑初)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정치평론가이기도 한 왕부지(王夫之)는 인종의 과단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어떤 관리에 대해 말이 나오면 곧 바꾸고 서로 다투면 양측을 모두 바꾸어 재위 기간 중 양부(兩府)에서 모두 40여 명이 바뀌었다. 비록 현명한 인물이 많았지만 안정적으로 직위에 있을 수 없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렇듯 사람이 계속 바뀌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모든 일이 조령모개(朝令暮改) 식으로 진행되어 아랫사람들은 믿고 따를 수가 없었고, 결국 어느 하나도 이뤄지지 못했다.”

인종의 이러한 약점조차도 그의 어질고 신중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려 정벌 반대한 이유

하루는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온 신하가 고려가 갈수록 공물을 적게 바친다면서 고려를 정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인종은 “그것은 단지 고려 국군(國君)의 죄일 뿐이다. 만약 공격을 한다 해도 반드시 그 국군을 벌할 수 없고, 반대로 무고한 많은 백성들만 죽게 된다”라면서 끝내 출병하지 않았다. 자기 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다.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백성이 마치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듯 슬퍼하고 비통해 했다. ‘송사(宋史)’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황제를 사모하여 경향 각지에서 백성들이 시장 문을 닫고 통곡을 했다. 심지어 거지와 어린이에 들까지 지폐를 태우면서 그 연기가 하늘을 가려 며칠 동안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적국 요나라서도 ‘조종’으로 섬겨

인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이자 숙적이었던 요나라 황제도 송나라 사신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다짐하였다.

“내 42년 동안 전쟁이란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도다! 황제를 위해 의관묘를 모셔 애도하도록 하겠노라!”

이후 요나라 황제들은 인종의 화상(畫像)을 모시면서 자기 나라의 조상, 즉 조종(祖宗)으로 삼았다.



중국 역사상 송나라 인종 이전의 어느 황제에게도 시호에 ‘어진 인(仁)’ 자가 붙여졌던 이는 없었다. 그럴 정도로 인종은 ‘인’으로써 치국(治國)을 행한 군주로, 농업국가였던 중국을 상업국가로 진입시켜 당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사진출처 위키백과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연히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비록 그의 치세 기간에 군사적으로 서하(西夏)와 요(遼)나라에 연전연패하고 수세에 몰렸지만, 풍부한 경제력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장기적으로 구가할 수 있었다. 문화 또한 크게 진작되어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한유, 유종원, 소식, 소순, 소철, 구양수, 왕안석, 증공 등 중국 역사에서도 특별하게 빛나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활약한 여덟 명의 대문호) 중 당나라 때의 한유와 유종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들이

소비진작에 별 도움 안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원된 돈이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19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 업종이나 음식점 등으로는 별로 흘러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내놓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2000억 원으로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씩 뿌려졌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모두 19조9000억 원이었다. 이 중 신용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금이 11조1000억~15조3000억 원이었는데, 지급 이후 늘어난 카드 매출액은 약 4조 원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예산의 26.2~36.1%만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 나머지 70% 정도는 재난지원금으로 필요한 소비를 하고, 원래 소득에서 지출하려던 돈이 가계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됐다고 KDI는 추정했다.

재난지원금이 많이 쓰인 곳은 준내구제와 필수재 분야였다. 지원금이 나간 5월초 이후 8월 둘째주까지 가구·문구·의류잡화 등 준내구제 소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포인트(p), 식료품·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의 필수재 소비가 8.0%p 늘었다. 반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이매용

·사우나·레저 등 대면서비스업은 3.6%p, 음식점은 3.0%p 증가하는데 그쳤다. 감염 확산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이들 업종 소비를 계속 꺼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살포해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진작에 한계가 있고, 피해가 집중된 여행이나 대면서비스 업종에 별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다. 이에 따라 KDI는 피해 업종과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등 맞춤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월에도 고용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함께 경제 피해가 계속 커지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다시 이들 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논의 중이다. 지원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나랏빚을 내야 하는 일이다. 경제주체 별로 코로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충격이 큰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되, 이들을 제대로 구해내 허투루 새는 돈이 없게 하고 예산 투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킷



설렘보다 불안, 코로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말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설렘’보다 ‘불안’이 앞선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일 0시 기준 1092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HYUNDAI
MOTOR GROUP



따뜻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특별한 기프트카

헌혈의 특별함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프트카 레드카펫이 함께 달리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찾아가는 헌혈 - **기프트카 레드카펫**

기프트카 레드카펫이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기프트카 캠페인입니다

기프트카 레드카펫 운영 프로그램

헌혈의 집까지 안심하고 이동하는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
원하는 장소에서 보다 쉽게 헌혈하는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
*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는 대한적십자사가 선정한 지역에서 순회 운영됩니다

기프트카 레드카펫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 찾아가는 헌혈 기프트카를 신청해 주세요
www.gift-car.kr

